

석사학위논문

#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Jeju's Western Music

- Focusing on the Operation and Activity of the Civil Band  
'Halla Wind Ensemble' -

제 출 자 : 김 상 미

지도교수 : 유 민 영

2003

예술경영 학과

예술경영 전공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Jeju's Western Music

- Focusing on the Operation and Activity of the Civil Band  
'Halla Wind Ensemble'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 5. 29.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김 상 미

김상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일 : 2003. 5. 29.

심사위원장      林 仙 然 

---

심사위원      김   수   복 

---

심사위원      오   기   영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 전공 : 김 상 미

지도교수 : 유 민 영

본 연구는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과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운영활동을 중심으로 제주음악의 현황과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초창기 서양음악의 유입과정을 비롯해서 해방기의 음악, 그리고 6.25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제주음악의 역사적 현황과 실태를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제주서양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최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운영과 활동은 음악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적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서양음악의 유입은 다른 지방과는 늦게 이루어졌으나, 학교 관악대의 활동은 외향적으로 매우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주음악은 침체와 발전의 부침을 겪으면서 최근에 이르러 시민밴드로 이루어진 ‘한라윈드 앙상블’을 비롯한 개방적 음악단체로 인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은 지난 10년동안 다른 단체에 비하여 활발한 활동 실적을 쌓아가고 있고, 또한 진취적인 방향 설정을 통하여 제주음악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의 운영과 활동에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보다 발전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5회의 정기적인 연주회를 여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가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한 방법으로 이 단체를 재단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연습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최상의 좋은 연주회를 위해선 연주악보에 표시된 악기를 모두 갖추고 연주할 수 있는 연주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상적인 악기관리를 위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악기보관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 지향적인 레퍼토리 확충을 위해 관심 있는 여러 단체와 업자가 협동하여 우리나라의 관악곡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홍보물의 제작이나 연간 공연을 알리는 유인물의 제작과 시즌 티켓을 판매하는 방법 등 한 단계 발전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방법에서 전문적인 연습클리닉을 위한 트레이너 제도나, 선진국인 다른 외국이나 국내의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연습과정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쉽게도 선행의 연구나 사례들이 많지 않아 논리적 취약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으나,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을 통해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로서 그 의의를 삼고자 한다.

# 목 차

국문요약 .....	i
표 목 차 .....	v
그림목차 .....	v
<b>I. 서 론</b> .....	1
1. 연구의 범위와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그 한계 .....	2
<b>II.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b> .....	4
1. 초창기 서양음악 .....	4
2. 해방 이후의 제주도 음악 .....	12
3. 1950~1970년대의 제주도 음악공연 프로그램 .....	18
4. 제주도의 보육시설 관악대 .....	31
<b>III.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의 운영 및 활동</b> .....	34
1. 제주도 자생단체의 현황 .....	34
2. 발전과정 .....	37
3.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의 운영 실태 .....	41
<b>IV.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의 발전적 운영 방향</b> .....	59
1. 일본의 사례 .....	59
2. 일본 시민관악단과의 비교 .....	63
3. 발전적 운영 방향 .....	67
<b>V. 결 론</b> .....	70

참고문헌 .....	75
ABSTRACT .....	78
부록1 : 제주 4·3사건(1948) 제2연대 선무공작대에서 선무용으로 불려진 “그리운 그 옛날” 악보 .....	i
부록2 : 일본 시민밴드 관악단체 현황 .....	ii

## 표 목 차

<표 1> 악기분포 상황 .....	7
<표 2>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 .....	33
<표 3> 기구 및 인력 .....	34
<표 4>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변단체 .....	36
<표 5> 경연대회 참가 기록 .....	38
<표 6> 한라원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파트별 출연자 통계 .....	44
<표 7> 한라원드 앙상블 활동 연혁 (장소별) .....	47
<표 8> 특급호텔별 행사 .....	49
<표 9>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공연활동 .....	57
<표 10> 연주회 듣는 방법 .....	58

## 그 립 목 차

<그림 1> 숫자로 표시한 악보 .....	11
<그림 2> 한라원드 앙상블 기구 .....	43
<그림 3> 일본 시민관악단의 창단 연도 .....	59
<그림 4> 일본 시민관악단의 편성 .....	60
<그림 5> 일본 시민관악단의 개인 회비 .....	61
<그림 6> 연습장소 .....	62
<그림 7> 정기연주회 .....	63

# I. 서론

## 1. 연구의 범위와 목적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관악기의 유입 과정이 색다른 과정을 밟고 있다. 성악이나 현악기와는 달리 관악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정은 군악대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유입이 됐으며 그 군악대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관악기 보급의 선구자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1884년 갑신정변을 전후하여 한국 군대에는 別技軍 이라하여 일본인 교관에 의해 일본식인 장비로 훈련된 군대가 있었다. 여기에 맞추어 군악대도 개편되었는데 일인 교관 堀本禮造가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측되는 신호 나팔과 북으로 편성된 曲號隊가 그것이다.

1986년 5월26일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제관식에 대한제국 궁내부 특진관이란 직함을 가진 민영환이 전권대사로 일행 5명과 함께 참석하게 된 기회에 유럽을 여행한 후 같은 해 12월에 귀국하여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서양식 군악대의 창설을 건의 한 것이 동기가 되어 군악대가 창설되었다.

이렇듯 서양관악기의 유입이 군악대의 창설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하게 제주도도 1950년 6.25 전쟁의 와중에서 제주도에 주둔했던 한 미군 장교가 신호나팔 4개와 작은북 2개를 가져와 한 고등학교에서 그곳의 학생 몇몇을 모아놓고 가르치던 것으로 제주도에 관악기가 보급되어 그 후 본격적인 관악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초창기 군악대의 창설과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다른 지방과는 다른 관악기 유입과정을 밟고 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관악인 들을 상대로 한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1995년부터 격년제로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할 수 있는 저력을 키우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밴드들의 활동은 다른 음악분야와 비교하여 환경이나 여건에서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1945년 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동한 단체들의 수는 많으나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연주회를 한 시민밴드는 2002년 한해동안 자료가 미비하여 수십 개 단체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남아 조사에 응해준 단체는 불과 4개 단체에 불과 하다.

본 연구의 범위를 1940년대로부터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을 관악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음악풍토 속에서 자란 오늘의 제주도내 음악계 특히 관악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의 시민밴드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운영과 활동을 고찰하고 그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그 한계

본 논문은 제주도의 서양음악의 유입과정을 우리나라의 서양음악 유입과정과 비교하면서 변천해 가는 모습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제주도의 학교음악의 변천하는 과정을 고찰 하면서 제주도의 서양음악 특히 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창단 후 10년간의 활동상황을 조사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종 연주회 프로그램과 연주회 설문지, 통계자료, 신문, 문헌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설문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단체에 조회를 했으나 각 시도지부의 주소와 책임자의 이름만을 전해 받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모든 학교와 일반관악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1950~70년대의 자료 중에서 그래도 보관되었던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어 그 기록을 본문에 인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음악의 변천과정을 1945년 전의 음악관계 기록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도내에 생존하고 있는 당시 활동한 인사와의 구술에 의한 정리임을 밝히는 바이다.

제주도의 4.3사건 당시 제2연대 선무공작대에서 도민에게 보급했던 이기형 작사, 작곡, “그리운 그 옛날”의 악보 원본을 입수 할 수 있었고 작곡자를 찾을 수 있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으로 생각한다.

## II.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

### 1. 초창기 서양음악

#### 1) 교회음악

1886년 한불조약을 계기로 100여년간에 걸친 천주교 박해정책은 끝이 났으나 유학적인 전통이나 인습에 젖어 있었던 당시의 일반관습은 이러한 오랜 박해의 전통이 국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조 일석에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같은 박해사건들은 지방관리들이나 지방유림들에 의하여 소규모의 사건에서 점차로 대규모의 사건으로 변하여 각처에서 대박해와 유사한 양상으로 탄압이 빈발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지방적인 자치 단체 및 지방관리들과 교인들 사이의 분쟁에서 혹은 교인들과 민간인들의 충돌에 의한 民擾사건들이 대단히 자주 일어났던 것으로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등지의 계속적인 黷亂사건으로 부패한 관리와 유생들에 의한 비타협적인 천주교인들과의 충돌사건이 일어났고 결말에서는 교인박해와 탄압으로 양상이 바뀌어져서 곳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민란사건까지 동반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즉 이러한 民擾사건들 중에서 근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랜 시일을 끌면서 수습하기 대단히 복잡한 외교관계의 문제까지 야기 시켰던 사건이 바로 신축년(1901)제주도 교난사건이다.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의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경로는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온 것과 같이 도민들의 자발적인 입교와 포교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이들 평신도들의 포교활동으로 제주도에 신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터전이 닦아지고 있을 1899년말에 천주교 경성교구 뫼뮈주교(閔主敎)의 명령으로 프랑스 사람 뻬이네베(Jean Charles Peynet) 신부(빠리 외방교회소속)와 한국인 金元永신부가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1899년 12월8일부터 제주에서 천주교 전교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지방적인 자치 단체 및 지방관리들과 교인들 사이의 분쟁에서 혹은 교인들과 민간인들의 충돌에 의한 民擾사건들이 대단히 자주 일어났던 것을 사료를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다.<sup>1)</sup>

그 중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는 1901년 辛丑年 교난 사건이다. 근세기에 들어오면서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랜 시일을 끌면서 수습하기 대단히 복잡한 외교관계의 문제까지 야기시켰던 사건이다.

이 제주도의 교난사건은 민란의 범위까지 확대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제주도의 토착인들과 그 토착인 관리들, 京來捧稅官 및 유배 죄인들과 한편으로는 일인 密魚業者들 또한 결국에 가서는 그곳에 선교를 위해 내도했던 프랑스 선교사와 그 신도들과의 사이에서 발생되었던 사건이었고 또한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대단히 복합적인 상황과 원인으로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여건에서 생긴 대규모의 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 기독교사는 우리나라가 미국 장로교의 언더우드(H.G Underwood : 1859~1916)와 미국 감리교의 아펜젤러(H.G.Appenzeller : 1858~1902) 두 사람이 최초의 정식 선교사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이 두 선교사에 의하여 한국에서 개신교의 선교사업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조직되고 한국 최초의 목사 7인이 임직되었는데 그중 한사람인 李基風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제주도의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sup>2)</sup>

1) 金玉姬, 濟州島辛丑年教難史, 天主教濟州教區, 1980, pp. 19~21.

2) 제주도, 제주도지(하권), 1982, pp. 621~22.

1908년 2월 이기풍 목사가 제주선교의 사명을 띠고 제주도에 입도한 다음해인 1909년에는 평양여전도회에서 李寬善전도사를 파송하여 이기풍 목사의 선교사업을 돕게 한다.

이기풍목사는 그 외에도 金弘蓮, 李先光 등 여전도사와 제주성내에서 만난 金在元, 洪淳興, 金行權 등의 협력으로 제주성내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성내 외곽지인 삼양, 조천, 금성, 한림 등의 산북지방을 시작으로 하여 전도를 순회하며 전도한 결과 제주도 전역에서 決信者를 얻게 되었으며 이들에 의해서 곳곳에 교회가 설립된다.

1908년부터 1, 2차에 걸쳐 13년동안 제주도에서 목회와 부흥회에 이기풍 목사가 많이 부르던 부흥성가<sup>3)</sup> 가사를 윤함대부인이 직접 써서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이런 개신교의 제주도 유입과정을 살펴보건대 제주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또 교회가 만들어져 예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찬송가를 포교의 목적으로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5선보에 의한 찬송가를 보급한 것이 아니라 노래 가사만으로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이 제주도 교래리 소재 “이기풍 선교기념관”에 기록이 남아있다.<sup>4)</sup>

## 2) 학교음악

### (1) 초등학교

1945년 해방전의 제주의 서양악기 보유실태는 정확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몇몇 초등학교에 교재용 악기가 있었다는 것과 초등학교에서

3) 부흥성가 : “부운가”, “기독 농촌가”

4) 이기풍(1865~1942) : 1907년 9월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된 제1회 독노회에서 제주선교사로 선발됨. 선교리에 부임한 것은 1908년 1월. (한국교회 사료 연구회)

관심 있는 교사가 시간 중에 창가를 가르쳤다는 당시의 학생이었던 현존하는 인사의 구술로 조사 할 수 있었다.<sup>5)</sup>

제주성내(현재의 제주시)의 초등학교(당시 제주북소학교 : 현재의 제주북초등학교와 제주남소학교: 현재의 남초등학교)에서는 풍금을 사용하여 창가 수업을 하였다는 당시 해당학교의 졸업생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해방전의 제주도 초등학교 설치상황을 조사해 보면 제주시 관내에 3개교, 서귀포시 관내 6개교, 북제주 관내에 13개교, 남제주 관내에 6개교라는 초등교육기관이 있었지만 각 학교에 교재용 악기의 분포상황은 기록이 되지 않았다.<sup>6)</sup>

### <표 0> 악기분포 상황

#### 제주시 관내

학 교 명	설립년월일	소 재 지	개교당시 학 급 수	기 타
제주북초등학교	1907. 1.10	제주시건입동1105	4	해방당시피아노보유
화북초등학교	1919. 3.15	제주시화북동3994	4	
외도초등학교	1939. 5.25	제주시외도2동253	4	관악기 보유

#### 서귀포시 관내

학 교 명	설립년월일	소 재 지	개교당시 학 급 수	기 타
중문초등학교	1927. 3.31	서귀포시중문동1984	4	
예래초등학교	1944. 4.30	서귀포시중문동상예리1250	4	
도순초등학교	1940. 6.15	서귀포시중문동도순리353	3	
서귀초등학교	1920. 2. 1	서귀포시서귀동558-3	6	
서호초등학교	1943. 4. 1	서귀포시호근동1421-5	4	
효돈초등학교	1938. 5.20	서귀포시신희동123-3	6	

5) 김일병 (제주북초등학교 1941년 졸업생)과의 대담. 2002년 5월 20일 제주시 건입동 자택.

6) 제주도, 제주도지(하권), 1982, pp. 411~12.

### 북제주군 관내

학 교 명	설립년월일	소 재 지	개교당시 학 급 수	기 타
하귀초등학교	1940. 3.26	북제주군애월읍하귀리1908	4	
광령초등학교	1943. 4. 1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1225-2	6	
구엄초등학교	1939. 2. 1	북제주군애월읍구엄리1069	4	
애월초등학교	1923. 9. 4	북제주군애월읍애월리1736	6	관악기 보유
귀덕초등학교	1940. 4.25	북제주군한림읍귀덕리1161	6	
한림초등학교	1923. 5.11	북제주군한림읍한림리1384	6	관악기 보유
신창초등학교	1933.10.24	북제주군한경면용수리3536	4	관악기 보유
고산초등학교	1940. 4. 1	북제주군한경면고산리2688	6	
조천초등학교	1922. 6.30	북제주군조천읍조천리3140	4	
함덕초등학교	1937. 7. 4	북제주군조천읍함덕리287	4	
김녕초등학교	1923. 9.10	북제주군구좌읍김녕리1958	4	
세화초등학교	1938. 5.20	북제주군구좌읍세화리1393	6	
하도초등학교	1921. 4. 5	북제주군구좌읍하도리232	4	관악기 보유

### 남제주군 관내

학 교 명	설립년월일	소 재 지	개교당시 학 급 수	기 타
남원초등학교	1924. 4. 1	남제주군남원읍남원리1344	6	
위미초등학교	1939. 5. 1	남제주군남원읍위미리3226	6	
표선초등학교	1909. 3.31	남제주군표선읍표선리456-1	4	
성읍초등학교	1937. 8.21	남제주군표선읍성읍리875	3	
동남초등학교	1923. 5.15	남제주군성산읍고성리1128	4	
난산초등학교	1934. 5. 1	남제주군성산읍난산리1109	3	

1940년 초반부터 제주도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몇 개의 교재용 관악기를 사용하여 활동한 기록은 사진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7)

7) 1943년 하도초등학교 관악대 사진 참조.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교재용 관악기를 보유하고 있던 초등학교는 위에서 보듯이 제주시에서 1개 교 북제주군에서 4개교가 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기명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악기 이름을 알 수가 없으나 사진기록에서 보듯이 타악기(큰북, 작은북) 파이프 트럼본등의 악기를 볼 수가 있었고 기계나팔이라고 한 신호나팔류의 관악기로 교내외 행사에 참가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sup>8)</sup>

교재용 관악기를 보유하고 있던 몇몇 초등학교의 관악기들은 해방 후에 특수한 목적 (제주 4·3사건 당시 선무공작대에 의하여 증발되었음)에 의하여 사용된 것을 증언으로 녹취를 할 수가 있었다.<sup>9)</sup>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학교 관악대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2명의 중학교 교사가 있었다. 해방 전 에월초등학교에서 강제노동교사가 학교에 있는 몇 개의 악기로 학생들에게 관악기로 연주하는 합주를 시도한 최초의 교사이다. 당시(1942) 에월초등학교 관악대의 편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악 기 명	수량
Clarinet	2
Cornet	2
Trumpet	2
Trombone	2

악 기 명	수량
Baritone	1
Bass Drum	1
Side Drum	2
계	12

강제노동 교사의 제자의 증언에 의하면 에월중학교에서 제주읍내의 제주농업학교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학교 밴드를 조직하여 활동을 했으나 행정적(교감) 보직으로 1946년 1년간의 활동으로 끝났다고 한다.<sup>11)</sup>

8) 하도초등학교 사진(큰북, 작은북, 클라리넷 3, 트럼펫 2, 트롬본 2, 재학생21명, 관계자5명)  
 9) 문경호 : 2002년 11월30일 오리엔탈호텔에서 대담.  
 10) 李善文, 濟州道管樂의變遷過程에關한調査研究, 京畿大學校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4, P.8.  
 11) 康季敦(1909~1997) :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출신. 제주농업중학교 교감(당시41세)역임. 1950년 '제주도인민군관영준비위원회 및 인민투쟁위원회 사건'과 연루,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1952년1월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 제주여자중학교 교가 작곡.

1940년대에 제주에 정착한 최초의 음악을 전공한 김국배교사는 송실전문학교를 마치고 경성교향악단(바이올린)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주에 온 그는 해방후 제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학교관악대를 만들고 지도육성을 하였다.

1947년 제주중학교 관악대에서 활동을 한 당시의 학생들을 보면 이태희, 문경호, 강경옥, 고두은, 임길홍, 정준수 등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1948년 제주중학교에서는 악극단에서 사용했던 악기를 구입하고 편성을 확대하였다. 이때 구입한 관악기로는 트럼펫, 트롬본, 파이프 트롬본, 바리톤, 그리고 타악기중에서 큰북과 작은북, 심벌즈 등이다.

1948년 3월 제주중학교 관악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악 기 명	편성	비 고
트럼펫	2	
트롬본	2	슬라이드 식
파이프 트롬본	2	피스톤 식
바리톤	2	
베이스 드럼	1	
스넬 드럼	2	
심벌즈	1	
계	12	

위에 적은 편성에서 눈여겨 볼만한 악기 중 파이프 트롬본은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은 악기이다. 트롬본에 3개의 피스톤이 있는 악기로 슬라이드식 트롬본과 같이 사용을 한 악기이다.

제주읍내에서는 유일한 제주중학교관악대의 실제적인 연습상황을 당시 학생으로 참여를 했던 인사에게서 들어 봤다. (문경호 : 당시 중학교3학년 트롬본) 그때는 오선보로 적은 악보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으로 평가를 받았고 아예 오선보를 사용하지를 않았다.

물론 저음악기들도 일률적으로 숫자로 피스톤의 자리를 표시한 숫자로 연주를 했었고 곡은 먼저 익힌 다음이라야 가능했었다고 한다.

이 때에 연주한 곡들을 살펴보면 국경일 기념행사와 관덕정 광장에서 야외연주를 하면서 학교 교가와 응원가, “쌍두의 독수리” 등을 편성에 맞게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 - :♪, - :♪, — :♪ )



<그림 1> 숫자로 표시한 악보

제주중학교에서의 유일한 학교 관악대의 활동은 제주 농업고등학교로 이어져 제주중학교 졸업생들이 이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었으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제주농업고등학교 관악대는 1년여의 활동을 한다음 지도교사 강계돈의 진출(제주중학교)로 중단돼 버리고 말았다. 당시 활동했던 민간 관악대인 제주 주정공장관악대는 회사에 비치되었던 악기가 있어 몇몇 관심 있는 이 회사의 직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 관악대는 사실상 제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직장 관악대가 된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활동했던 이 직장 관악대의 악기 편성은 다음과 같다.

악 기 명	편성	비 고
클라리넷	2	알버트식
코 닷	1	
트 럼 췌	2	
바 리 톤	1	
트 롬 본	2	
베이스 드럼	1	
스넬드럼	2	
계	11	

1940년대 제주에서 사용된 클라리넷은 알버트식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에서도 프로 연주자들도 알버트식 클라리넷을 사용했다는 일본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sup>12)</sup>

제주주정공장 관악대의 주요 활동은 주로 사원 위안연주 및 사내 체육 대회등에서 활동하다가 약 일년후인 1949년 초 해체되었다고 당시 회사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sup>13)</sup>

이때 사용했던 악기중 일부가 제주중학교의 관악대에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파견된 국군 제2연대에서 선무공작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군·관·민의 필연 사업으로서 제주중학교 관악대의 선무공작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군보도부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때 선무공작대의 관악대의 편성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제주도의 초등 학교에 산재해 있던 관악기들이 모두 징발당하여 사용을 하였으나 선무공작대가 해산한 다음 이때 사용됐던 관악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도 없거니와 아는 인사조차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 2. 해방 이후의 제주도 음악

### 1) 해방직후

#### (1) 제주 최초의 음악회

제주도에서 처음 열린 음악회의 기록을 찾아보면 1928년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관현악단이 창단한 직후인 1929년 등대수 위문연주회때 제주도에서 ‘시인과 농부’ ‘과도를 넘어서’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sup>14)</sup>

12) 木津 清(기즈 기요시 : 1928년~ ) 1945년 당시 일본 교오도(京都)에서 미군 댄스홀에서 클라리넷 연주를 한 프로 클라리넷 연주자.

13) 高乙風 (1925년~ ) 당시 제주 주정공장 회사원.

14) 李忠雨, 京城帝國大學, 多樂園, 1980, P.136.

해방후 제주 최초의 음악회는 제주도 인사들이 중심이 돼 열린 1948년 3월 김봉학, 김국배, 고봉식 등이 주축이 되어 열린 음악회로 제주북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sup>15)</sup>

## (2) 4·3사건과 선무 공작대<sup>16)</sup>

제주 4·3사건(1948) 당시 주민들과 군의 필요에 의하여 제주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군 제2연대 산하에 선무공작대를 두어 현역장교 이기영을 단장으로 홍원표를 부단장으로 하여 지방 인사들이 모여 활동을 하였다.

전술한바와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선무활동을 하면서 당시 만들어진 곡 중에서 이기형 작사, 작곡의 “그리운 그 옛날”이 작곡자가 보관중인 악보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자료조사중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부록 1 : “그리운 그 옛날” 악보 참조 )<sup>18)</sup>

## 2) 1950년대의 제주음악

### (1) 음악인

1951년 6월25일 한국동란과 함께 많은 음악계 인사들이 제주로 피난을 와 직접 간접적으로 제주의 음악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제주도에 피난 온 음악계 인사로는 계정식(바이올린), 김금환(성악, 오현고등학교 피난분교 음악교사로 “춘향전”을 공연), 이성삼(합창, 지휘), 정훈모

15) 제주 4·3사건 : 1948년 4월3일 발생한 무장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 전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

16) 고봉식(1923~ ) 제주출신, 단국대 졸업, 전 제주도 교육감, 제주도음악협회장, 현 제주국제 관악계 조직위원장, 국민훈장 모란장등 수상. 저서 「敎壇 40년」 등.

17) 이기형(1924~ ) 제주 남양문화방송 편성부장, 제주신문사 논설위원, 한라일보사 논설교문, 제주도 문화상 수상. 저서 「풍속도」.

18) “그리운 그 옛날” 단기4282년 3월 도두국민학교에서 작곡자가 직접 발표(초연).

(성악), 변 훈(작곡, 제주제일중학교 음악교사, 제주일중 교가 작곡)<sup>19)</sup>, 이성재 (제주중학교 교사), 박제훈(작곡, 신성여자중학교 교가 작곡) 고두희(피아노), 정남혁(성악, 신성여고 음악교사) 등이 체제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한 활동을 했다.

제정식 박사는 제주 동부교회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했으며 바리톤 정남혁(당시 신성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은 신성여고 강당에서 독창회를 열었다. 찬조 출연으로 김국배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이들의 활동은 제주에 서양음악의 뿌리를 내리는데 계기가 되었다.<sup>20)</sup>

박제훈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악이론 공개 강좌를 연 작곡가이다.

## (2) 제1훈련소 군악대

6·25사변과 더불어 창설된 제1훈련소군악대는 훈련소내의 행사 뿐만이 아니라 대민사업도 활발히 펼쳤다.

제1회 군관 합동연주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시 : 1953년 7월1일      장소 : 오현고등학교 강당

1953년 7월3일      장소 : 대정초등학교 강당

### 출연

제1훈련소 군악대 ..... 지휘 : 강봉원 대위. 이인성 특무상사<sup>21)</sup>

연주곡목 : 바그다드의 추장. 시인과 농부. 천국과 지옥. 천안삼거리.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지휘 : 교봉식

연주곡목 : 왕자와 거지. 액티비티 행진곡

---

19) 변 훈 : 함남함흥출생, 연세대 정치외교과 졸업. 제주제일중교사, 1953년 외교관 시험합격. 이후 30년간의 외교관생활, 1952년 가곡 “떠나가는 배”, “명태” 작곡, 대표곡 : 쥐, 한강, 설악산아, 목련 등.

20) 강문철,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3, P.67.

21) 이인성 : 국방경비대 군악대부터 현역생활, ‘노란샤쓰의 사나이’를 부른 한명숙의 남편. 서울수복후 종로에서 음악학원 경영.

(3) 제주도 경찰악대

지휘 : 김성파

연주곡목 : 당시 사정에 의하여 출연하지 못함<sup>22)</sup>

제주여자고등학교 합창단.....지휘 : 김국배<sup>23)</sup>

연주곡목 : 휘날리는 태극기 ( 전출연자 합동연주 )

제1훈련소 군악대는 대민사업에도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군인(박은제상사 클라리넷)을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오현고등학교) 관악대를 직접 지도하여 목관악기의 새로운 주법을 전수하여 제주도의 관악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다.<sup>24)</sup>

1901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군악대를 창설한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군악대를 해산을 한 후 이왕직 양악대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경성악대로 되었다가 해산이 된 다음 뿔뿔이 헤어진 군악대원이 해주 송도고보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 관악대를 만들었다.<sup>25)</sup>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월남한 송도고보 출신들이 제1훈련소 군악대원으로 현지 입대하여 제주에까지 와서 제주지방 학생들에게 관악기 주법을 전수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다.<sup>26)</sup>

그렇다면 제주의 관악사는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고 우리

---

22) 김승택 : 당시 오현고등학교 2학년재학생 색소폰으로 행사에 참가, 프로그램과는 달리 경찰악대가 불참했다는 증언을 함.

23) 김국배(1912.9.13~1965.1.5) 전남목포출생, 평양 숭실전문학교 수학, 경성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 1940년대 제주 정각, 제주중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 역임, “오돌또기” 편곡으로 KBS 방송국 공모에서 입상. 1964년도 제3회 제주도문화상 수상.

24) 박은제 : 전남 무안군 제1훈련소군악대 당시 선임하사, 클라리넷.

25) 송도고보 : 1930년 조선일보 주최 전국경연대회에서 우승, 1932년 연희전문이 주최한 경연대회에서 우승.

26) 정순만(1930~ ) 1953년 당시 제1훈련소 군악대에서 클라리넷 연주, 현 서울실버밴드에서 콘트라베이스 주자로 활동.

나라에 처음으로 군악대를 만든 엑케르트의 전통이 이어진 것을 보면 제주의 음악사가 우리나라의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음악분야에 비교하여 먼저 발전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다.

#### (4) 제주도청 청사 낙성식 축하 연주

1952년 12월 20일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청사 신축을 기념하는 행사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 벤프리트 장군(미8군 사령관)부처등이 참석하신 가운데 열렸다.

당시 제주도에 주둔중인 미군 찰스 E. 길버트소령의 지휘로 연합악대와 연합합창단의 연주로 “할렐루야”를 연주했다.

연 합 악 대 : 한국보육원악대,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제주중학교 관악대.

연합합창단 : 제주여자고등학교합창단, 신성여자고등학교합창단.

오현고등학교 피난분교합창단.

#### (5) 제주의 관악과 Charles. E. Gilbert

1952년 9월 제주주둔 미군 CAC부사령관으로 취임한 찰스 E. 길버트소령은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이라는 전언만 전해 진다.

제주 근무기간(1953년 9월까지 1년6개월간)에 한국보육원(지휘 : 한경화), 오현고등학교(지휘 : 고봉식), 제주중학교(지휘 : 이성재), 제주도 경찰국(지휘 : 김성파) 등에 악기와 악보를 지원하고 직접 지도까지 하여 현재의 제주관악의 씨앗을 뿌린 은인이다.

제주의 근무를 마치고 이도하기 전인 1953년 8월20일 지원을 받은 모든 악대가 출연 수자의 행진곡 ‘성조기 영원하리라’를 그의 지휘로 관덕정 광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의 서양음악 유입과정에서 관악분야는 1896년 5월26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관식에 대한제국 궁내부 특진관이란 직함을 가진 민영환이 전권대사로 일행 5명과 함께 참석하게 된 기회에 유럽을 여행한 후 같은 해 12월에 귀국하여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서양식 군악대의 창설을 건의 한 것이 동기가 되어 군악대가 창설되었다.

일본에서 활약하다가 계약이 끝나 독일로 귀국한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를 초빙하여 군악대를 창설한 우리나라의 관악 유입과정 이 그로부터 67년 후 제주도에는 미국의 한 군인이 들어와 관악의 씨앗을 뿌려 현재에 이른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서양악기 유입 경우처럼 제주도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특히 제주도에서는 오늘에 있어서 “제주 국제관악제”라는 국제적인 행사로까지 이어져 다른 지방과는 달리한 변천과정을 밟고 있다.

### 3. 1950~1970년대의 제주도 음악공연 프로그램

#### 1) 1950년대 제주도의 음악회

1954년에는 본도 초유의 대규모 학생 예술제가 오현고등학교 주최로 열렸는데 여기에는 음악경연대회가 포함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음악활동을 크게 자극시킨 청량제가 되었다.<sup>27)</sup>

제1회 전도 학생 종합예술제 일정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954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11	25	오현고등학교		제1회	전도학생종합예술제		제1일	사회 :	임석효		제주극장	
							합창	제주여고합창대				
								개선험창과	행진곡 (베르디곡)			
								아리랑(민요)				
							독창	제주여고 최순자				
								마리아마리 (가부너)				
								내일 크로마 (김순애)				
							독창	제북교 1년 김영숙				
								1.파리 2.눈이올시다 3.바닷가				
							독창	제주여고 안금순				
								라스파니오라 (카이라)				
								먼 싘타루치아				
							3중창	제주여고 양인숙의 5명				
								추억(김국배)				
							합창(2부)	제북교				
								1.구름 2.근로의노래 3.우리의소원				
							3중창	제북교 고려진 김선숙 최성숙				
								별				
								이름이 새라면				
							독창	제북교 3년 이원봉				
								순경 아저씨				
								아! 가을인가				
							독창	제주여고 이순제				
								고향(김성태)				
								돌아오라 쏘렌트로(그리스트)				

27) 강문철,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시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3, p.67.

월	일	주	주	주	주	주
일	일	주	주	주	주	주
11	25	오현고등학교	제1회 전도학생종합예술제	독창 제복교 4년 조광남 1.총소리 2.대한의 소년 4중창 제주여고 이순제, 안금순, 박순자, 좌은실.		
11	26	오현고등학교	제1회 전도학생종합예술제	음악부 상오 9시부터 사회 : 임석효 독창 상오 1년 강병욱 반주 : 김철수 가고파 민 샨타루치아 독창 제주여중 양금자 동심초(김성태) 독창 표선중 3년 라선주 곡 미정 독창 남교 김영자 태극기가 독창 문제현 여수 합창 제동교 들장미 누가누가 잠자나 합창 신성여고합창대 (지휘 : 한경화) 아름답고 푸른 도나부 가을 독창 제일중 고병수 곡미정 독주 신성여중 김윤희 소년의 기도 독창 제중1년 김일만 해군의 아침 전우의 이별 독창 제서교2년 고인숙 (반주 : 문경숙) 산골집의 자장가 가을 옛날 이야기 중창 제남교 이영자의 2명 받들자 상이군인 독창 귀일중 1년 최혜영 (반주 : 문경호) 봉선화 합창 표선중 4명 곡 미정 3중창 제주여중 김정자의 5명 방랑자(사라라-테) 합창 제동교 30명 별 숲길	제주극장	

월	일	주	주	목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11	26	오	현	고	등	학	교	제	1	회	전	도	학	생	중	합	예	술	제	주	극	장				
								독	창	신	성	여	고	2	년	최	감	회								
								라	포	마																
								독	창	제	일	중	김	의	택											
								곡	미	정																
								크	라	리	넷	독	주	제	주	여	중	유	인	자						
								베	스	트	로	부	멜	로	디	(알	하	이	스	곡)						
								금	과	은	(프	란	스	레	하	-	곡)									
								독	주	신	성	여	고	2	년	고	경	회								
								왈	츠	(쇼	팡	곡)														
								독	창	제	중	3	년	이	양	수										
								승	리	의	용	사														
								고	향	생	각															
								중	창	제	남	교	김	병	자	의	1	명								
								고	향	생	각															
								독	창	제	일	중	김	수	돈											
								곡	미	정																
								독	창	광	양	교	5	년	김	영	택	(반	주	: 김	창	연)				
								최	영	장	군	우	리	의	소	원										
								독	창	표	선	중	2	년	김	순	정	(반	주	: 윤	동	열)				
								곡	미	정																
								독	창	제	동	교	김	정	자											
								고	향	생	각															
								망	향																	
								독	창	제	중	1	년	박	성	수										
								사	우																	
								젊	시	의	노	래														
								독	창	제	일	중	홍	성	중											
								곡	미	정																
								독	창	제	남	교	서	민	숙											
								자	장	가																
								파	리																	
								독	창	오	고	1	년	김	철	수										
								시	인	의	가	슴														
								오!	내	사	랑															
								독	창	제	동	교	김	민	숙	김	정	자								
								고	향	생	각															
								협	주	제	일	중	취	주	악	대	18	명	지	휘	: 이	성				
								길																		
								테	쇼	보	-	이	(월	하	-	푸)										
								군	대	행	진	곡	(벤	넷	도	곡)										
								독	창	신	성	여	중	3	년	김	창	희								
								잘	있	겨	라	나	포	리												

월	일	주	주	회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11	26	오	현	고	등	학	교	제	1	회	전	도	학	생	종	합	예	술	제		
								2	중	창	신	성	여	중	오	찬	덕				
								부	용	(	쁘	르	크	만	곡	)					
								독	창	신	성	여	중	2	년	이	애	회	황	기	자
								라	스	파	니	오	라								
								독	창	제	중	3	년	문	승	록					
								휘	날	리	는	태	극	기							
								망	향												
								중	창	제	남	교	김	병	순	외	3	명			
								우	리	의	소	원									
								합	창	제	주	여	중	합	창	대					
								조	각	배	(	나	이	트	곡	)					
								추	가	프	로										
								육	일	훈	군	악	대	찬	조	출	연				
								금	번	특	히	육	일	훈	훈	련	소	장	님	의	특
								으	로	군	악	대	원	일	동	찬	조	래	참	을	환
								속	에	맞	어	들	입	니	다	.					
								대	원	41	명	지	휘	육	군	대	위	정	안	수	
								곡	목	행	진	곡	국	제	연	탁	(	합	)		
								원	무	곡	무	도	회	의	권	유					
								서	곡	천	국	과	지	옥							
								찬	조	출	연	방	명								
								제	주	경	찰	공	보	실	밴	드					
								지	휘	김	성	과	선	생							
								한	국	보	육	원	밴	드							
								성	조	기	영	원	하	라	(	수	-	사	)		
								파	판						(	고	르	드	멜	곡	)
								아	메	리	카	의	순	라	대	(	미	-	사	곡	)
								위	리	얌	텔				(	롯	시	니	곡	)	
								기	의												
								지	휘	:	한	경	화	선	생						
								오	현	고	등	학	교	교	악	대					
								서	곡	경	기	병	(	슈	-	페	곡	)	의	지	휘
								교	보	식											

## 2) 음악감상회

1958년 제주 미국 공보원 주최로 행하여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958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7 3	제주미국공보원	음악감상회	파리앗치	미국공보원
7 23	제주미국공보원	11회음악감상회	슈벨트 교향곡 9번 '미완성'	미국공보원

1954년 제주시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전도학생종합예술제 음악부분 프로그램이다. 당시의 칠자법 띄어쓰기 그대로 읊었다. 학교 합창단을 합창대라고 한 것이나, 밴드를 밴드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 것은 지금으로서는 생소한 표기법이다. 초등학교 합창단의 지휘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쉬운 기록이다.

독창 중창 합창등 성악부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출연했으나 기악 부분의 독주악기로는 클라리넷말고는 다른 악기의 독주는 없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고전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 고정 음악감상회가 여러 곳(다방)에서 열렸었다는 증언을 들었으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열거한 고전음악감상회로 미국공보원(현 관덕정)에서 주최하는 음악감상회가 여러 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3) 1960년대 제주도의 음악회

1963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10 11	예총제주도지부	제2회제주예술제	음악제, 독창 합창 15:30	제일극장
12	예총제주도지부	제2회제주예술제	취주악연주 11:00. 어린이노래잔치 15:30	제일극장

1966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11 22	예총제주도지부	제5회한라문화제	음악제. 어린이합창단 탐라합창단 오현취주악대	시민회관

1967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5 15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사월초파일의밤	오현고등학교 악대 제주대학불교학생회 합창단	시민회관
5 14	가로등 클럽	극빈아동돕기 자선의밤	피아노독주 : 고은자(신성여고2학년) 슈벨트즉흥연습곡 오현고 밴드부 : 무명의 5곡 지휘:김승택	시민회관
5 20	제주여자고등학교	어머니날기념 예술제	음악발표 합창 (제주여중고합창단) 지휘 : 현종실 반주 : 조인순 1.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작사 이홍렬 작곡 2. 어머니 은혜..... 윤준병 요 박재훈 곡 3. 신의 영광..... Beethoven곡 4. 사 우.....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 ◎독창 (좌동매 고3) 5. 달 밤..... 김태오 작사 나운영 작곡 6. Caro mio ben..... Giordani 곡 ◎피아노 독주 (이동실 중2) 7. Sonata in C Major..... Mozart 곡 ◎2중창 (국명숙 중3 김미복 중1) 8. 노래는 즐겁다..... 독일민요 9. 아름다운 나의 벗.....스코트랜드민요 ◎교사4중창(고원희 이봉길 현기봉 강승원) 10. 내고향으로 날 보내주.....브란트 곡 11. 쾨티키 옛집.....Foster 곡 ◎ 피아노 연탄 (조인순 김봉희) 12. 철도	시민회관

월	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일	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9		신성여자고등학교	서울중앙여자 고등학교 제주신성여자 고등학교 교원음악회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9	29	오현고등학교	개교16주년 오현브라스앙상블 연주회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지휘 : 임정은 서곡 “로자문테” op.26.....F.Shubert 첼로협주곡 D장조 op.101....J.Haydn 첼로독주 : 이창우 교향곡 제92번 “옥스포드”....J.Haydn 지휘 : 고기봉 합창 : 개선행진곡 .....J.Verdy	시민회관			
					찬조출연 : 이정덕(소프라노) 지 도 : 박창표 피아노반주 : 고은실 1. 가고파.....김동진 2. 매기의 추억.....미국민요 Horn : 박창표, 이규창 3. 토셀리의 세레나데.....토셀리 4. 망 향.....하이스 Flute : 김군택 5. 치리비리빈.....페스타로차 6. 산골짜기의 등불.....아메리카민요 Trumpet : 고세권 7. 그대는 아는가 남쪽나라를.....토마스 8. 도라지 꽃.....윤용하 Soprano : 이정덕 9. 즐거운 나의 집.....비숍 Flute : 김군택 Alto Saxopne : 김승택 Trumpet : 고세권 1st Horn : 박창표 2nd Horn : 이규창 Piano : 고은실	KBS 제주방송 국 제 1 연 주 실			
10	2	록사회	제1회음악감상회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둘체다실			

1968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4	6	공보부예총	제2회 제주도민족예술 제전	◎시가행진 : 제주도민속예술단원 제북교악대, 제서교악대 -제1부- 제주민속놀이와 민요 음악 : 송정은 안무 : 송근우 제주민요 “오돌또기” “제주타령” 한석화 윤병생 고정심 김태매 이여수 이준원 박무생 이순생 안 선 최복진 이순선 김주옥 한봉옥 김운학 이광천 제주민요 “해녀의 뱃노래” “맹기노래” 예술단 일동 -제2부- 노래와 경음악 (KBS 전속가수 및 전속악단) 1. 나를 잊지 마세요.....선우강 썬셋(Sunset) 2. 덕수궁 돌담길.....성임경 우중의 여인 3. 샬레이드.....경음악 4. 노란샤쓰의 사나이.....정지연 라노비아 5. 안개 낀 장충단공원.....현대회 우수 6. 그대와 영원히.....경음악	제주능고 운동장

1960년대 후반에 들어 공보부가 주최하는 민속예술축전에 제주에서는 제주여자고등학교 무용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제주에 전래되는 민속을 찾아내어 무대화하는 작업이 이때부터 이루어진다.

#### 4) 1970년대의 제주도의 음악회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제주의 음악회는 활기가 불는다.

YMCA 산하에 있는 단체(Vivace, Glee Club 클럽)와 YWCA 산하에 있는 단체(어머니 합창단)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 시기이다.

대학에서는 ‘제주간호전문대학’이 음악회를 연 것은 제주도의 대학음악회의 효시가 된다.

1972년

월	일	주	주	주	회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3	18	제주YMCA	제주YMCA 창립2주년기념식 VIVACE클럽 제4회음악발표	사회 : 임정부간사 지휘 : 채종탁 반주 : 고숙희 발표 : VIVACE 3기,4기생 1. Sing Along [3기4기].....R.Allen 2. 등            대 [3기4기].....영국민요 3. 치리비리빈 [3기4기]....A.Pestalozza 4. 영광대한민국[3기4기].....미국민요 5. 초구의 저녁 [3기4기].....J.Mazzinghi * 찬조 : HARMONY클럽 6. 켄터키 옛집 [3기].....C.Foster 7. 내고향으로 날보내주[3기].F.A.Blando 8. 기쁜 봄철. [3기].....들림노래 9. 종달새 [3기].....G.Rossini * 찬조 : 비바체 제1기생 10. 신고산 타령 [3기4기].....한국민요 11. 가 자 [3기4기].....노이브란트 12. 신의 영광 [3기4기].....L.Beethoven 13. 이 별.....A.Asher	제주YMCA 2층 홀									
3	28	한미재단	한미재단 순회음악연주회	1. Mezzo Soprano 정영자 1. 그 네.....금수현 2. Voce di Donna "La Gioconda" .....Ponchielli 2. Piano 우정일 1. La Campanella.....Liszt 3. Baritone 김원경 1. 오 라.....현재명 2. Non Piu Andrai "Figaro"...Mozart	장소불명									

월	일	주	취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3	28	한미재단	한미재단 순회음악연주회	한미재단 순회음악연주회	4. Soprano 김자경 1. 수선화.....김동진 2. 봄이 오면.....이흥렬 - 휴 식 - 5. Soprano 김자경 Baritone 김원경 1. La ci darem la mano "Don Giovanni".....Mozart 6. Mezzo Soprano 정영자 1. 바우고개.....이흥렬 2. O Don Fa Sale "Don Carlos".Verdi 7. Baritone 김원경 1. 이별의 노래..... 김성태 2. Arggati "Un Ballo Maschera".....Verdi 8. Soprano 김자경 1. 브리탈..... 윤용하 2. 봄노래..... Bishop	장소불명						

한미재단이 주최한 순회음악연주회가 제주에서 열리기는 했으나 프로그램에 연주장소가 기재가 안되어 어느 장소에서 연주회가 열렸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1974년

월	일	주	취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6	15	제주간호전문 학교학생회	나이팅게일祭	나이팅게일祭	나이팅게일 선서 Chorus 본교합창단 지휘 : 고경화 반주 : 전영숙(2년) 개신마차타라(Spiritual) 외 4곡 Piano Solo.....전영숙(2년) Beethoven Sonata 17번 op.31 1악장 Duet .....고봉희(2년) 김미복(2년) 언덕위의 집 외 1곡 가야금 독주.....김정희(1년) 가야금 산조중 중머리 외1곡 Trio..김수정(3년)김금옥(1년)장인숙(1년) 포구의 저녁(J.Mazzinghi) 외 1곡 Solo..Mezzo Soprano 문영숙(1년) 거룩한 성 (S.Adams)외 1곡	학생회관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6	15	제주간호전문 학교학생회	나이팅게일제	나이팅게일제	Piano 연탄...김수정(3년) 고인아(2년) 고상한 왈츠(Beethoven) Chorus 본교합창단 할렐루야<오라토리오(구세주)에서> 독무(탈춤)... 노희경(1년) 부채춤..... 문영숙(3년) 이현주(3년) 김경아(3년) 강기전(1년) 노희경(1년) 유인숙(1년) 찬조...제일고등학교 밴드부 지휘: 강휘남 사관후보생 외2곡	학생회관						

1975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4	26	제주간호전문 학교학생회	나이팅게일제	나이팅게일제	제1부 음악 * 합창 제주간호전문학교 합창단 지휘 : 이태신 반주 : 전영숙(3년) 봄 밤.....이수인 곡 편단디아.....J.Sibelius 티플의 포수.....티플민요 *독창 테너 김기수(3년) 반주 교회순(2년) 선구자.....조두남 곡 Santa Lucia.....C.Napoletana *Violin 독주 박은숙(1년) 반주 교회순 La Cinquantain(금혼식)...G.Marie 곡 *혼성4중창 김용주(2년) 김보경(1년) 문진식(1년) 양순자(1년) 정은숙(1년) 김영애(1년) 반주 : 고인아 맹꽁이와 삼살개.....미국 학생노래 *Duet 고봉희(3년) 김금옥(2년) 반주 : 고인아 갑돌이와 갑순이.....한국의옛노래 *합창 제주간호전문학교 합창단 메기의 추억.....A.Butter 천지창조.....J.Haydn *화관부 노희경(2년) 유인숙(2년) 좌호신(2년) 강미옥(1년) 신숙현(1년) 이복생(1년) *독무(살풀이) 김혜숙(1년) *스페인 춤 노희경(2년) 이복생(1년)	학생회관						

1976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5	8	제주YWCA	어	버	이	날	축	하	음	악	회	학	생	회	관								
							지	휘	:	김	승	택											
							반	주	:	이	태	신	고	은	실								
							□	제	1	부													
							시	골	아	가	씨	.....	이	태	리	민	요						
							웃	으며	즐	기	세	.....	스	위	스	민	요						
							어	머	니	.....	Bill	Parkinson											
							성	불	사의	밤	.....	홍	난	과									
							추	천	가	.....	김	희	조										
							□	제	2	부													
							참	조	출	연	:	제	주	YMCA	하	모	니	클	럽				
							내	선	한	목	자	.....	김	두	완								
							나	가	자	동	포	여	.....	보	헤	미	아	민	요				
							북	치	는	소	년	.....	헬	리	심	코	네						
							Drum	:	김	병	홍												
							생	명	의	양	식	.....	Cesar	Franck									
							베	네	덕	투스	.....	G.P.	Paestrino										
							□	제	3	부													
							Soprano	Solo	:	권	자	련	, 반	주	:	고	은	실					
							수	선	화	.....	김	동	진										
							Tosca	중	에	서	노	래	에	살	고	사	랑	에	살	고			
							꽃	간	치	.....	김	규	환										
							Flute	:	현	철	수	, 오	용	국									
							아	침	기	도	(카	발	레	리	아	루	스	티	카	나	중	에	서
							개	선	의	대	행	진	곡	(아	이	다	중	에	서				
							Trumpet	:	강	태	훈												

1978년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5	11	제주YWCA	제	7	회	정	기	연	주	회	학	생	회	관		
							지	휘	:	김	승	택				
							반	주	:	이	동	실				
							□	합	창							
							봄	의	합	창	.....	Smetana				
							어	머	니	.....	Bill	Parkinson				
							춤	추	는	춘	향	이	.....	김	희	조
							새	물	금	포	타	령	.....	황	철	익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5	11	제주YWCA	제7회	정기	연주회	<p>□ 3중창 Soprano : 고혜봉 Mezzo Sop : 강연심 Alto : 강효선 반주 : 최신숙</p> <p>오라.....현제명 그다마음 날 떠났네.....Caldara</p> <p>□ 합창 브리발.....윤용하 자장가.....김대현 &lt;곡중독창 : 공옥자&gt; 브리피리.....조 념 목련화.....김동진</p> <p>□ 피아노 독주 : 홍명신 Waltz No.2.....Chopin op,64</p> <p>□ 독창 : Soprano : 권자련 반 주 : 고은실</p> <p>수선화.....김동진 가극 "운명의 힘중에서"..G.Verdi (La Forza deldestino) 하느님 평화를! (Pace, Pace, mio dio!)</p> <p>□ 합창 아름다운 아침.....J.Sibelus 여호와는 나의목자시니...나운영 &lt;곡중독창 : 김도희&gt;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P.Mascagni &lt;곡중독창 : 김옥자&gt; 알렐루야.....W.A.Mozart &lt;곡중독창 : 권자련&gt; 사랑의 노래.....L.Arditi</p>	학생회관					
5	26	제주 Glee Club	제6회	합창	연주회	<p>지휘 : 김군식 반주 : 이동실. 문정화</p> <p>깊은 강.....혹인영가 주님 오시네.....혹인영가 가라모세.....혹인영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곡 귀 기울여 들으라.....글로리아 웨인</p>	학생회관					

월	일	주 최	행 사 명	프 로 그 램	장 소
5	26	제주 Glee Club	제6회 합창연주회	무심천을 지나가며.....김성태 곡 귀뚜라미.....김규환 곡 그리움.....이수인 곡 꽃파는 아가씨.....황철익 곡 - 휴 식 - 호를불.....러시아 민요 춤추는 춘향이.....김희조 곡 스웨덴 자장가.....스웨덴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이상근 편곡 새뚱금포 타령.....황철익 곡	학생회관

70년대에는 제주도 합창음악이 중흥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음악인 또는 음악애호가들이 자생적 모임을 갖고 비교적 많은 합창연주 단체들을 창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sup>28)</sup>

#### 4. 제주도의 보육시설 관악대

제주도의 관악사를 정리하다보면 보육시설에서 운용한 관악대의 기록이 나타난다.

##### 1) 구세군 고적대

한국동란 중에 많은 종교인들이 제주도로 피난 나와서 만들어졌던 고적대이나 구전에 의한 기록말고는 연주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 2) 한국보육원 관악대

1951년 1월 서울을 철수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제주로 수송한 한국 공군의 미군사 고문관인 헤스 대령의 도움으로 공수작전을 펴 제주로 온

28) 오승직, 제주도 지방의 합창활동에 관한 연구 : 상설, 사설 합창단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14.

고아들로 구성된 한국보육원(원장 황은순) 원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악대이다.

한국보육원 원아들의 공수작전을 영화화하여 릭 하드슨이 헤스대령역을 맡고 열연을 하기도 했다. 당시 길버트 소령의 도움과 지도로 발족한 한국보육원 관악대(지휘 : 한경화)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정규 40인조 이상의 관악대로 일정한 기간 활동한 보육원 관악대로 기록된다. 당시를 기억하는 인사의 기억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마칭밴드의 트와링을 한 밴드로서 본격적인 마칭밴드는 아니었으나 우리나라 마칭밴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새롭게 기록을 해야 한다고 했다.<sup>29)</sup>

### 3)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

1983년 12월에 창단연주회를 연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은 세계기독교 선명회의 지원으로 리듬합주반으로 발족하고 20여회의 행사에 출연을 했으며 5회의 정기연주회를 포함하여 1988년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활동을 했던 청소년 관악대였었다.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은 여녀 보육시설 관악합주단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지원으로 창단 됐고 운영됐다.

세계기독교 선명회의 지원을 받았고 일본인 유와모도 마사오(岩本 正) 박사의 도움으로 악기를 확보할수 있었던 것은 한국보육원 관악단이 미국인의 지원을 받은 것이나 공통적인 여건을 갖고 창단하고 활동을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5회의 정기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은 ‘영진윈드 앙상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 육아원 원아들이 스스로 독립하여 새로운 단체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했으나 외부의 아무런 도움을 받을수 없어 3회의 정기연주회로 끝난다.

29) 김승택(1935~ ) 계주시 출신. 당시 오현고등학교 음악부장으로 한국보육원 관악대와 합동연주도 같이 했음. 현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 음악감독.

제주도에서 활동을 했던 보육시설의 관악단은 단체의 특성상 시대적인 양상을 띄워 한시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비록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은 역사의 뒤안길에 놓인 단체이나 오늘의 제주도 관악계의 주춧돌이 되었던 단체들이다.

<표 2>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

행 사 명	지휘자	연 주 일	장 소
제1회 정기연주회	강경수	1983.12.14	제주시민회관
제2회 정기연주회 연주곡 The Gypsy Baron.....Y.Strauss Morning Glory.....H.A.V.Codi Trumpet : 김동원 Munuet from "L'Arlesienne" No.2...G.Biget Flute : 한용운(찬조) Violin Concerto No.7.....P.Rode Violin : 장선경 Overture Prince and Pauper...H.M.Jhnson The Music Man.....M.Wilson Forklore for Band.....J.A.Caudill El Bimbo.....C.Morgan Screen Music My Way.....Paul Anka Instant Concert.....H.L.Walters Princess of India.....K.L.KIng	강경수	1984. 9.18	제주시민회관
제3회 정기연주회	강경수	1985.10.27	제주시민회관
세계청소년의 해 기념 합동송년음악회	강경수	1985.12. 2	제주시민회관
제4회 정기연주회	강경수	1986.11.24	제주시민회관
제5회 정기연주회	강경수	1987.11.26	제주시민회관

### Ⅲ.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운영 및 활동

#### 1. 제주도 자생단체의 현황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 현황을 정리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3> 기구 및 인력(30)

단 체 명	단원수	분 류	창 단	단 장	지휘자
KBS제주방송총국어린이합창단		어린이합창단	1961년		이경숙
제주YWCA여성합창단	47명	여성합창단	1972년	오경애	차충성
오현음악부동문회	345명	고교동문연주단	1980년	김인호	
아라베스크기타중주단	19명	클래식기타 동호회	1986년	송동효	
제주실내악단	27명	실내관현악단	1988년	고원순	김인규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23명	관현악단	1989년	양세훈	장홍용
우달바라어린이합창단	70명	불교어린이합창단	1990년		양승보
제주아동음악연구회	82명	장각동요 동호회	1990년	강시남	
한라소년합창단	67명	어린이합창단	1991년	김형규	안성복
동굴소리연구회	20명	동굴음악연구회	1992년	현행복	
솔밭 남성중창단	54명	남성중창단	1992년	태성수	
제주대학교음악학과동문회	530명	대학동문연주단	1992년	윤경택	
제주불교여성합창단	50명	불교여성합창단	1992년	박진영	이춘기
제주오케라단	259명	오케라단	1992년	권영희	이춘기
제주대학교 기타'소리너울'동문회	60명	클래식기타 동문회	1993년	현성화	
한라윈드 앙상블	42명	관악합주단	1993년	김대은	김승택
준트리오	5명	실내악단	1995년	강효정	
제주브라스앙상블	10명	금관중주단	1996년	허성훈	
제주피아노트리오	10명	피아노중주단	1996년	고재희	
제주YMCA유소년오케스트라	72명	어린이관현악단	1997년	김태성	
제주여성합창단	40명	여성합창단	1998년	양인옥	
제주피아노앙상블	3명	피아노중주단	1998년	안혜정	
칼리오케OB합창단	26명	아마추어남성합창단	1998년	김용철	
제주피아노학회	20명	피아노연구회	1999년	박승방	
제주콘서트콰이어	32명	남성합창단	1999년	김봉관	
CBS제주방송소년소녀합창단		혼성어린이합창단	2000년		차충성
제주빛소리앙상블	21명	목관앙상블	2000년	문경호	
제주소년소녀합창단	47명	어린이혼성합창단	2000년	서광용	권영희
제주심포니밴드	35명	관악합주단	2000년	홍경호	홍경호
제주느그나영부부합창단	74명	혼성합창단	2000년	하기중	강문칠
대경청소년합창단		학생혼성합창단	2001년	이춘식	김미경
제주플루트앙상블	20명	플루트합주단	2001년	문성집	
제주콘탁셀비오케스트라	17명	실내악단	2001년	박광식	박광식
한라오케스트라	35명	관현악단	2001년	이영만	
한라에코제즈밴드		재즈악단	2002년	현충현	백태기
제주심포니에타		실내악단	2002년	고경화	김행중
제주플루트리들앙상블	18명	플루트어린이합주단	2002년	문성집	
제주간투스합창단	44명	혼성합창단	2002년	김영봉	신성식
제주현악4중주단		실내악단	2002년		

30)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현황, 2003, pp. 175~208.

1980년대에 와서 제주도에서도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수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제주도에 정규 공연장인 제주도문화회관이 개관되면서 민간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시민 단체들의 탄생이 된 해이다. 국립제주대학교에 음악학과가 개강되면서 제주도의 현악기 연주자들이 양성이 되었다.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도 초유의 실내악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 제주실내악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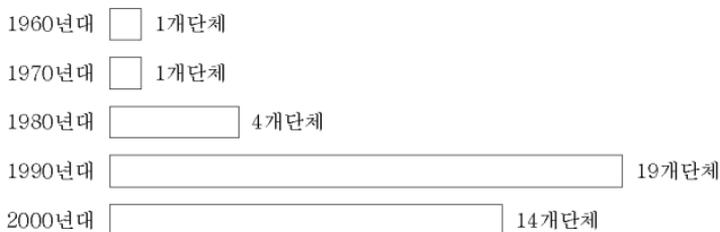
일반 시민연주단체들이 창단만 하고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제주실내악단은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이다.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제주에서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의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몇몇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된 어린이들의 오케스트라로 지금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관림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된 어린이 합창단이 아니고 순수하게 남자 어린이들만으로 만들어진 한라소년합창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소년 합창단으로 창단 후 매해 정기적인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유럽3개국 순회연주를 갖기도 했다.

1990년대에 와서 제주도내는 음악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음악의 전반적인 연주형태를 갖는 단체들이 하나 둘 창단을 하고 있다.

### 연대별 연주단체 창단 도표



### 연주형태별 단체 도표

실내악단	<input type="text"/>	10개단체
관현악단	<input type="text"/>	2개단체
합창단	<input type="text"/>	13개단체
관악단	<input type="text"/>	2개단체
재즈악단	<input type="text"/>	1개단체

우리나라 지방에 비해서 연주단체들이 많은 것은 아니나 그런데로 여러 형태의 연주단체들이 창단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합창단 9개 단체 중에는 어린이 합창단 3개 합창단 중, 고등학생 합창단이 1개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인합창단 중에는 2개의 혼성합창단이 있다.

실내악단 중에는 플루트앙상블과 금관중주단도 포함시켰으며 종교합창단은 조사를 생략했다.

**<표 4>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변단체<sup>31)</sup>**

단 체 명	분 류	창단년월일	단 장	지휘자
제주시립교향악단	관현악단	1985. 1. 10.	김영준	이동호
제주시립합창단	혼성합창단	1985. 1. 10.	김영준	성상철
북제주군합창단	혼성합창단	1998. 7. 31.	신철주	오승직
서귀포시립합창단	혼성합창단	1987. 11. 24.	김성현	홍성호
서귀포시립관악단	관악단	1998. 2. 6.	김성현	양경식

31) 위의 책, pp. 175~208. 참조.

## 연대별 관련단체 창단 도표

1980년대  2개단체

1990년대  3개단체

## 연주형태별 관련단체 도표

교향악단  1개단체

합창단  3개단체

관악단  1개단체

제주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만을 조사를 했다.

## 2. 발전과정

### 1) 제주도의 학교 관악대

1950년대에 와서야 비로서 정규적인 편성을 갖춘 학교 관악대가 창설됐으며 1960년대에 와서는 재일교포들이 향리의 모교에 기증한 악기로 새로운 중고등학교 관악대가 탄생하게 된다.

1970~1980년대에 와서야 제주도에는 경쟁적인 관계를 갖게된 학교관악대가 탄생하여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관악대중 광복 후에 활동한 학교관악대인 효돈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증문중학교, 조천중학교, 표선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관악대가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공립학교인 경우 적절한 지도교사 수급이 안되었으며 필요한 악기의 조달이 계속되지 못한 것 등이 겹쳐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표 5> 경연대회 참가 기록**

개최연도	행 사 명	주 최	개 최 지	참가학교	경연결과
1953. 11.	제4회영남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54. 11.	제5회영남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55. 11.	제6회개춘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56. 10.	제10회전국음악경연대회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오현고등학교	2위
1956. 11.	제6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57. 11.	제7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58. 10.	제8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70. 10	제12회목포예술제	예총목포시지부	전라남도목포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70. 11.	제20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제주여자고등학교	최고상
1971. 11.	제13회목포예술제	예총목포시지부	전라남도목포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73. 11.	제23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오현고등학교	최고상
1974. 11.	제24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서귀중학교	최고상
1975. 11.	제25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서귀중학교	최고상
1976. 10.	제1회KBS배쟁탈 전국고교관악대경연대회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오현고등학교	준우승
1976. 11.	제26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서귀중학교	최고상
1982. 11.	제31회개천예술제	예총진주시지부	경상남도진주시	한림공업고등학교	최고상
1989. 9	제14회KBS배쟁탈 전국고교관악대경연대회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대기고등학교	금 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학교 관악대의 활약상은 다른 음악분야보다는 현저하게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된다.

1952년에 창단한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고등학교 관악대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50여년간 활동을 계속한 학교 관악대로서는 유일한 학교 관악대 이다.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는 진주 예총이 주관하는 예술제에서 16번의 최고 상을 수상한 기록을 남겼고 서울대학교 개교 10주년기념 전국음악경연대회에서 관악부문 2등으로 입상 그 실력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른다.

목포 예총이 주관한 목포예술제에서 2회에 걸쳐 최고상을 수상했고,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제1회 KBS배쟁탈 전국고교관악경연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우리나라 학교 관악대의 명문교로서의 전통을 만들어 냈다.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앞서 창단한 제주여자고등학교 관악대가 진주에서 개최하는 개천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고, 중학교관악대로는 유일하게 제주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귀중학교 관악대가 진주에서 열리는 개천예술제에서 3연승의 기록을 만들어낸 것은 제주도 학교 관악의 지력을 보여준 것이다.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가 뒤를 이어 개천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고 대기 고등학교가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KBS배 전국고교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학교관악대의 발전은 일반 기성 관악대를 창단하는 계기가 된다.

현재에 와서 학교별로 매해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는 고교관악대들은 하드웨어의 확보는 이루어져 악기수급은 지금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교 편중화의 영향으로 연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질적인 면에서 만족할만한 연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2) 제주도 민간 관악대

1982년 창단한 탐라 관악합주단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민간 관악단으로서 1985년 제주시립관악단으로 개칭,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87년 제주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을 유도하게 된다.

탐라관악합주단과 제주시립관악단의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 탐라 관악합주단

행 사 명	지휘자	연 주 일	장 소
창단연주회 연주곡 The Music Man.....M. Willson Carnival of Roses.....J. Olivadoti Clarinet Concerto.....C.M.Weber 협연 : 강경수 찬조 Baritone Solo : 고성진 선구자.....조두남 떠나가는 배.....변 훈 Minute Man Overture..L.Forsblad 音樂祭 前奏曲.....A.Reed Papillon.....J.Gold Smith	이선문	1982. 5.12	제주시민회관 (제1회연주회)

### 제주시립관악단

행 사 명	지휘자	연 주 일	장 소
창단연주회 연주곡 Marche Triomphal.....Berlioz Exodus.....E.Gold Soprano Solo : 교경은 못잊어.....김동진 그리운 금강산.....최영섭 West Side Story.....L.Bernstein Largo.....L.V.Beethoven Clarinet Concert op.26...C.M.V.Weber A Night on Bald Mountin..M.Moussorgsky An American in Paris...G.Gershwin	이선문	1985. 3.22	제주시민회관
제주시제30주년기념대연주회(2회정기연주회)	이선문	1985. 9. 1	제주시민회관
세계청소년의 해 기념 송년합동연주회	이선문	1985.12. 2	제주시민회관
제3회정기연주회	이선문	1986. 4. 7	제주시민회관
도제실시40주년기념 연주회	이선문	1986. 8. 1	제주시민회관

제주시립합주단은 1987년 1월부터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본 도 문화예술에 있어서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교향악단의 탄생은 우리 제주시민 모두의 바람이고 또한 기쁨이지만 이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배를 끄는 아픔 속에서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본 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악의 인적자원 빈곤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 도시에 비해 그 어려움은 더욱 큰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단원 모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시립교향악단의 성장하는 모습을 사랑과 꾸준한 인내로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현재의 합주단 편성과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병행 운영합니다.

위의 글은 제주시립교향악단 창단연주회 프로그램에 게재된 「**제주시립교향악단 출발에 즈음하여....**」 전문이다.

당시 제주도 음악계를 조명하는 좋은 자료로서 여기 인용하였다. 제주도도 타 시도에 비하여 현악의 인적 자원이 빈곤하다는 것과 관악합주단과 교향악단의 2원 체제로 병행 운영한다고 한 것은 시립교향악단의 탄생에 따른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3.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운영 실태

#### 1) 창단

1993년 몇몇 뜻있는 제주 출신 관악인들이 모여 시민밴드의 창단을 제안하게 된다.

도내 13개 고교관악대 출신들을 주축으로 민간인들의 모임인 시민밴드를 창단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된다.

한 독지가(양세훈)의 주선으로 기금을 마련한 창단준비위원들은 서둘러 제주시내 어느 고교 음악실(오현고)에서 신학기가 시작된 1993년 3월 처음으로 희망단원들을 소집했다.<sup>32)</sup>

Flute 1명, Clarinet 1명, Saxophone 2명, Trumpet 1명, Horn, 1명, Trombone 2명 등 8명으로 시작한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은 창단 후 제주도 관악사에 새로운 기록을 하는 민간단체로 성장 활동한다.

‘한라윈드 앙상블’(HALLA WIND ENSEMBLE) 창단에 대한 당시 지방신문의 기사 중 일부를 여기 실는다.

……(전략) 오는 6월7일 하오8시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 ‘한라윈드 앙상블’(단장 양세훈)이 바로 그 화제의 단체이다.

고교시절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비전공자들이 모여 만든 이 연주단체는 도내 첫 순수아마추어관악합주단으로 음악계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라윈드 앙상블’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연주단체로 실용음악을 연주할 예정인데 18세에서 36세까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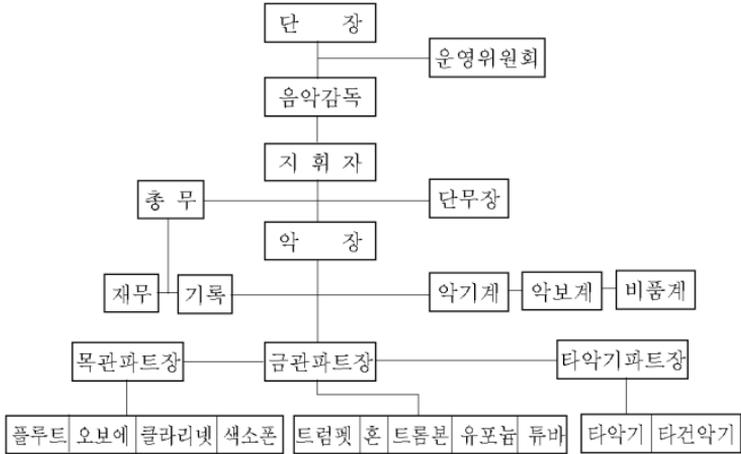
‘한라윈드 앙상블’ 양세훈 단장은 “고교시절 트롬본을 불기도 했지만 그 후 사업에만 전념하여 지난해 10월 고교 스승님에게 창단을 추진하게 됐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창단연주회 준비를 시작했다”. (후략)…… <김오순(기자), 제주신문, 1993.5.22.>

비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은 10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예술의 토양에서도 시민밴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단체가 된다.

---

32) 양세훈 (1943.3.2~ ) 제주시 출신. 제주도 태권도협회 회장, 한라소년합창단, 한라윈드 앙상블,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역임.

## 2) 조직 및 인력



<그림 2> 한라원드 앙상블 기구

일반적인 다른 유사단체와의 편성과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민간단체에는 후원회가 있는데 ‘한라원드 앙상블’에는 후원회가 없는 것이 다른 단체와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 전반적인 단체의 운영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있고 예산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재정문제는 외부에서의 지원금(문예진흥기금 등)은 일단 단체를 대표하는 단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 금액을 일단 전액 총무 통장으로 이체를 한 다음, 행사비 등으로 지출을 하고 정산업무를 하고 있다.

총무의 비중이 단무장과 동격으로 하고 재무관리를 기록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단체와는 다른 조직 기구를 갖고 있다.

이 단체는 사안에 따라서 전단원이 참가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과반수 이상의 단원이 찬성을 해야만 모든 단체의 운영관리와 행사 참가 결정을 하고 있다.

**<표 6> 한라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파트별 출연자 통계<sup>33)</sup>**

정기연주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Flute	2	3	1	1	1	3	2	2	1	1	5	6	3	4	6	5	6	7	8	5	6	6	7	6		
Oboe	2			1		1	1	1				1		1	1				1	1	1	1	1	1		
Bassoon	1	2	1																							
Clarinet	8	6	8	7	6	7	8	7	7	9	7	6	9	8	6	6	5	5	7	10	8	8	7	8		
Saxophone	6	5	7	7	6	4	4	3	3	4	5	3	3	3	2	3	3	2	3	2	3	4	4	3		
Trumpet	4	5	7	6	7	5	8	7	6	10	8	9	8	8	8	6	8	7	8	7	7	6	8	6		
Horn	2	4	1	2	3	4	4	3	3	3	3	4	2	3	2	3	3	3	2	1	3	2	2	3		
Trombone	6	5	3	5	4	5	4	5	5	6	6	5	6	5	4	4	5	5	6	5	5	5	4	4		
Euphonium	2	1	2	2	2	1	2	2	3	2	2	2	2	3	3	2	3	1	3	2	1	1	1	3		
Tuba	2	2	2	2	1	1		2	1	2	2	2	2	2	1	2	2	2	2	2	1	2	1	2		
C. Bass		1															1						1			
B. Guitar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 Guitar					1	1		1	1	1	1	1		1			1									
Piano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Percussion	5	4	5	4	6	7	6	6	7	6	7	6	8	8	9	7	9	7	7	7	7	4	8	7		
	46	40	45	39	39	40	47	41	40	42	48	45	45	48	44	42	48	40	48	44	43	40	45	44	909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이 창단연주회에서부터 24회 정기연주회까지 파트별 출연자의 인원수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관악분야가 활성화 되어있다고는 하나 Oboe와 Bassoon 파트의 연주자가 없다는 것이 나타난다.

33) 한라윈드 앙상블, 연습일지, 1993. 6~2002. 12, 참조.

Bassoon 파트는 창단연주회와 2회와 3회 정기연주회말고는 한사람의 연주자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

Oboe 파트도 19회 정기연주회에서 부터는 한사람의 연주자가 계속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4회의 정기연주회 중 10번의 정기연주회에서는 Oboe파트가 한 사람도 없이 연주회를 가졌다.

Contra Bass도 24회의 정기연주회 중 3번의 연주회에서만 한사람의 연주자를 확보한 것 등으로 제주에서는 아직 Oboe와 Bassoon 그리고 Contra Bass 등 필요한 파트를 아직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관악계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절대 필수악기인 Tuba 없이 연주한 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상식도 없는 편성으로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대신할만한 악기도 없이 정기연주회를 연 것은 민간 연주단체가 한번의 연주회를 하기 위한 인적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24번의 정기연주회 출연인원 평균은 37명이지만 10회 정기연주회에서 Trumpet 파트가 10명이고 Flute 파트가 1명인 것은 파트의 평균치의 유지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모든 관악단이 파트의 밸런스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악보에 표시된 악기를 갖추어서 연주를 해야하는데 아직 악보에 표시된 전악기를 갖고 연주하는 단체는 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한라원드 앙상블’의 보기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일로 하루속히 전파트의 균형을 이룬 연주를 해야함은 물론이다.

지금 출판되고 있는 관악곡에서 타악기의 중요성은 세삼스럽게 강조할 것도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관악대의 편성에서는 예산문제 악보에 표시된 타악기를 모두 갖추지 않고 연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관행이 일반 시민밴드에도 마찬가지로 자체예산으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 지인을 통하여 악기를 대여하고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적인 환경으로 제주도에서는 악기대어를 해 주는 곳도 없는데 비하여 ‘한라윈드 앙상블’은 자체적으로 모든 타악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참으로 고무적이다.

대여 악기인 경우 거의가 행사 직전 아니면 당일 대어를 하여 실제 연습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는 것은 모든 악기를 갖추고 연습을 하는 것과는 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3) 다양한 연주활동

제주도에서 자생적으로 창단을 하고 계속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한국의 일반 민간관악단체의 발전적인 모델로 새로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첫손을 꼽는 곳이지만 관광상품의 단순화로 도내 일반 관광지 투어로 폭포와 동굴 그리고 오름을 중심으로한 등산, 민속마을, 식물원 등의 가장 기초적인 관광 투어의 상품만으로는 다른 지방과의 경쟁에서 밀려난다.

목적성 관광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도내 일반 관광지 투어, 생태마을 투어, 제주도의 생성과정을 살필 수 있는 해안선 관광 투어, 체험관광 투어 등을 개발하면서 야간 관광 투어의 단순화에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 이벤트 관광상품으로서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대공연이 가능한 음악, 무용, 연극 등 분야의 단체 중 개인을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야간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음악단체가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이다.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라윈드 앙상블의 활동 연혁을 장소별로 조사를 해보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7> 한라원드 앙상블 활동 연혁(장소별)

구역	연주장소	년도											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제주시	제주도학생회관(전)	1												1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2	3	4	3	4	4	3	4	4	2			33
	제주도문예회관소극장			2			1	1	1	1				6
	제주도문예회관야외무대						1	1						2
	제주도경관장	1												1
	탐동 야외무대	1	1											2
	제주해변공연장			7	2	1	1	3	1	2	3			20
	에함운동장						1							1
	칠성로 야외무대								2					2
	제주시경 야외무대						1							1
	용담 레포츠공원										1	1		2
제주종합운동장 야외무대									1				1	
호텔	제주신라호텔	2	3	1	1	2	1	1		1			12	
	제주그랜드호텔			1									1	
	제주칼호텔					2							2	
	제주유스호텔						1						1	
	제주롯데호텔									3			3	
제주하얏트호텔										1		1		
학교	제주관광전문대학			1									1	
	중앙초등학교				1								1	
	신창중학교							1					1	
시외	협재해변무대					1							1	
	함덕해변무대					1							1	
	한림읍민관		1										1	
	김녕체육관						1						1	
	천지연야외무대							1	1	1			3	
	교래리삼다수공장야외무대							1					1	
	제주경마장 야외무대								1				1	
	함덕 아가의 집									1			1	
	서귀포유람선부두특설무대									1			1	
도외	대구대백프라자콘서트홀	1											1	
	부산시민회관	1											1	
	청주 예술문화회관			1									1	
	청주 예술의전당				1		1			1			3	
	대전 청소년수련원						1						1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										1		1	
국외	日本京都長岡京文化會館		1		1								2	
	日本岡山倉敷藝文館							1					1	
	日本岡山里庄町綜合文化廳								1				1	
	합 계	9	9	17	9	12	13	16	14	12	7		118	

특히 음악 전문분야에서도 야외 연주회를 하는데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관악이다. 여름밤 낭만이 넘치는 바닷가, 아니면 숲속이나 들판에서의 야외음악회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도 개발을 할 만하다. 우선 관심이 가는 것은 호텔에서의 행사 자료이다.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특성상 다른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호텔에서의 연주회가 특급호텔이 기획한 계절적인 관광상품으로서도 충분한 상품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제주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특급호텔에서의 행사를 간추려보면, 제주신라호텔에서는 매해 고르게 행사를 12회나 10년 동안에 치루었다면 호텔투숙객을 위한 관광이벤트성 상품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주관광은 이제 보는 관광상품에서 야간문화 관광상품으로서 개발을 해야하는 시기에 왔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관광지가 그렇듯이 제주도의 야간관광상품이란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단순성 상품뿐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민속관광'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공연(무용, 기타)하고 있지만, 야외에서의 계획성 행사로서는 제주도의 국제 관악제가 대표적이지만 이 행사는 전문성의 비중이 높아 일반 관광객용 이벤트 행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일반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한다면 '한라원드 앙상블'과 같은 대중성 실용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단체의 활용을 살린다면 제주도 야간 관광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 수익성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출연료를 받고 있는 '한라원드 앙상블'은 다음에 적은 행사에서의 수입을 단체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어 그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관광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은 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행사내용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특급호텔별 행사

행 사 명	연 주 일	장 소	주 관
팝 페스티벌 초청연주	1993. 8. 5	신라호텔 수변무대	제주신라호텔
성탄 축하 음악회	1993.12.25	신라호텔 대연회장	제주신라호텔
현대자동차 미주지역딜러설명회	1994. 6. 9	신라호텔 수변무대	현대자동차
MBC 즐거운 아침 생방송	1994. 7.28	신라호텔 야외무대	MBC
썸머 페스티벌 초청연주	1994. 8. 5	신라호텔 수변무대	제주신라호텔
설날 신춘음악회 초청연주	1995. 1.31	신라호텔 대연회장	제주신라호텔
제주JC창립기념 초청연주	1995. 3.18	제주 그랜드호텔	제주JC
한가위 음악회 초청연주	1996 9.27	신라호텔 대연회장	제주신라호텔
신라호텔 초청 신년음악회	1997. 1. 1	신라호텔 대연회장	제주신라호텔
썸머페스티벌 개막연주	1997. 7.29	신라호텔 수변무대	제주신라호텔
국제로타리 제28년차 대회	1997.11.21	제주 칼호텔 대연회장	국제로타리
제주 칼호텔 초청 성탄음악회	1997.12.24	제주 칼호텔 대연회장	제주칼호텔
성덕바우만과 함께하는음악회	1998. 7.17	신라호텔 대연회장	제주신라호텔
썸머 뮤직 페스티벌 초청연주	1999. 8. 1	신라호텔 대연회장	제주신라호텔
BTH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1999. 8.18	신라호텔 야외무대	BTH유니버스티
롯데썸머페스티벌 개막초청연주	2000. 7.31	롯데호텔 대연회장	제주롯데호텔
롯데썸머페스티벌 초청연주	2000. 8.13	롯데호텔 대연회장	제주롯데호텔
2000 송년음악회	2000.12.31	하얏트호텔 특설무대	제주하얏트호텔

대중성을 띠는 것은 다분히 수준이 낮아져 음악회의 수준이 품위를 잃을 수가 있는 함정이 있다.

일반 야간 업소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음악회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중성을 띠는 것은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계는 트롯트를 저질음악이라고 일방적으로 폐도를 하고 있다. 트롯트를 연주하는 연주자를 3류악사로 취급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찾는다면 민요말고는 가장 한국인의 정서에 와닿는 음악이라면 트롯트를 가장 손꼽아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가르켜준 선생도 없지만 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없으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트롯트곡 한 두 곡 노래를 못하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

대중음악이라고 질 낮은 음악이라고 매도를 하는 한국의 음악환경에서는 알겐틴의 탱고음악, 브라질의 삼바음악, 스페인의 플라멩고, 프랑스의 샹송 등 나라마다의 특성 있는 음악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이 새롭게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다.

대중가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하게되자 자문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한국의 풍토에서는 대중음악의 고급화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는지 모르겠으나 실력있는 작곡자들 아니면 편곡자가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인 트롯트의 새로운 편곡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일본에서의 New Sound in Brass에서의 American Graffiti 시리즈나 Japanis Graffiti 시리즈를 일련의 전공한 제대로 실력을 갖춘 작곡가들이 편곡을 하여 출판을 한 곡들이 세계적인 관악 악보출판사의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음악적으로 세계화에 성공한 일본 관악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만 관악 악보 출판시장이 우선 국내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국내에서는 악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관악 선진국의 대열에는 설 수가 없다.

국내에서 악기는 세계 유수의 유명악기를 구입을 할 수가 있다.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다고 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인 악보시장은 전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 한라윈드 앙상블 창단연주회 연주곡 -

1993년 6월7일 오후8시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지휘 : 김승택

J.Sousa.....	Sousa March Medley
김동조.....	농촌의 아침 상주모내기 노래에 의한 타령
C.F.Gounod.....	March Romaine
A.P.Borodin.....	Polovetzian Dances Ballet Music from "Prince Igor"
이와이 나오히로 편곡에 의한	경음악(New Sound in Brass)
G.Gershwin.....	Rhapsody in Blue
N.Iwai.....	New York, New York
N.Iwai.....	West Side Story

위에 인용된 프로그램중 “이와이 나오히로 편곡”에 의한 경음악이라고 한 New Sound in Brass를 주목해야한다.34)

34) 새로운 관악곡의 장르 “뉴사운드 인 브라스”

1967년 스타트한 이 뉴사운드 인 브라스는 일본의 관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그린 획기적인 제척이었다. 1967년 일본의 관악단체는 4,000단체 정도였으나 그로부터 20년 후에는 9,000단체가 활동을 했으며, 특히 시민밴드의 급증을 볼 수가 있게 된다. 서양의 관악발전을 시도한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하면 아시아에서는 터키가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계의 관악계는 일본의 약진으로 세계의 관악계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두드러진 일본의 관악계의 변화는 일본에서 제작되는 관악기의 제조가 세계 관악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유형을 찾아 볼 수가 없었던 뉴 사운드 인 브라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곡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급을 하는 전문적인 연주단체(Kosei Wind Orhstra)까지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한지방 시민단체가 민방 TV에 출연을 하면서 즐거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악보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뉴사운드 인 브라스 시리즈가 된다. 걸출한 세계적인 편곡자 岩井 藤(이와이 나오히로)가 이 지방의 시민밴드를 위하여 편곡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리즈가 되어 지금 대해 10곡식 편곡된 작품이 출판되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관악곡은 원래 실용음악을 담당하는 것으로 탄생을 하여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왔으며 그래서 대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속해 온 것이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시대가 바뀌어저도 불변할 것이다. (Kosei wind Orhstra 87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참조.)

1972년 일본의 관악단은 4,000단체에 근접했었고 이후 약 1만단체가 활동하고있는 일본에서 시민밴드가 급증한 것을 볼수가 있다.

단체의 숫자만으로는 미국 다음 많은 단체가 활동을 하는 나라가된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같이 일본도 과외활동의 활성화로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관악이 널리 보급된다.

우수한 군악대가 많은 영국, 아마추어분야의 직장 금관밴드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북부유럽말고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많은 학교밴드가 성한 나라는 볼 수가 없다.

의무교육 아래에서 학교에서의 오랫동안의 의무교육 아래에서 양산된 음악을 즐기는 시민층이 급속하게 많아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학교 관악대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 연주 가능한 연주자들이 모여 시민밴드들이 탄생을 한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연주단체들이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연주곡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관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르의 곡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수요공급의 필연적인 결과로 새로운 장르의 연주곡이 탄생하게된 것이 일본에서 처음 시도한 New Sound in Brass이다.

1972년부터 2002년까지 매해 10곡식의 세계의 유명한 음악들을 망라한 대중적인 편곡작품을 출판하여 수요에 따른다.

지금까지 310곡의 편곡작품이 New Sound in Brass라는 장르로 출판된 곡들은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도처에서 환영받는 연주곡으로 출판되고 있다.

이 작업을 하는 편곡자들 중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편곡자가 일본인 이와이 나오히로(岩井直薄 : 1923~ )이다.

그는 동경예술대학에서 호른을 전공하고 대학 재학 중 전문 오케스트라의 트럼펫 연주자로도 활약 그 후 전문적인 편곡자로서 1959년 도시바 EMI전속 편곡자가 되어 현재는 일본 국내 여러 곳의 밴드 클리닉 및 정기연주회 등에서 지휘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팝을 중심으로 한 작·편곡 작품 약 3,500여곡을 망라하고 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음악회가 다 그러듯이 연주자 위주의 연주곡들이 관객들을 외면하게 만들었지만 New Sound in Brass 계통의 곡들이 다분히 실용음악적인 대중성을 띤 곡들이 일반 관객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 곡들을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이 많은 연주를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4) 관객개발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동기와 계기로 인해 공연장으로 발길을 옮겨놓게 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공연 관람 통계를 보면, 전체인구 중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대략 10%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이 10%를 이루는 사람들의 85%가 연간 1, 2회 정도 공연장을 찾는 것으로 조사돼 결국 정기적으로 공연 관람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2%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sup>35)</sup>

이 소수에 머물러 있는 관객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근래 들어 공연계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 관객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

1993년 5월에 창단한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고정관객을 만들어 가는 방법 중에서 2000년 12월 16일 제18회 정기연주회와 2001년 2월 24일 제19회 정기연주회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전체 응답자중에서 18회 정기연주회에서 처음으로 제주도문예회관을 찾은 관객 중 그 다음 19회 정기연주회에 또 다시 찾은 관객 중에서는 아예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알려져 가족단위의 관객이 찾아와 관람을 하고 있다.

35)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 관객 성향 잘 파악한 무대가 관객 부른다, 문화예술, 2002. 9, p.33.

그 숫자는 비록 11명에 불과 했으나 이 단체가 창단 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는 저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 10년 동안(1993~2003) 성공적인 관객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설문에 응해준 관객에게 그 결과와 고마운 편지를 보내고 다음 연주 때는 필히 초청장(2명이 입장할 수 있음)을 보내어 음악회에서 한 번의 관객으로서의 관객이 아니라 '한라윈드 앙상블'의 한 가족 운동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음악회를 가게 하는 동기유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고정 관객들이 연주회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연주자가 같은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오고 이러한 분위기가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운영에 대한 자문기구(후원회)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 5) 관객교육

프로그램의 한정된 지면이나 연주곡 속의 소개, 그리고 특수한 악기 소개 등 치밀하고 성실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통 음악회에서는 거의 안내 혹은 진행을 위한 사회자가 연주에 대한 소개를 하지만 이 단체는 직접 지휘자가 친절하고 재미있게 연주곡과 악기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동요 프로그램을 1995년 2월 25일 제 3회 정기연주회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준비하여, 동요보급 및 가족과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음악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서서히 고정관객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객들이 계속 증가하여 민간단위의 유료공연으로 성공적인 음악회라는 평을 듣고 있다.

## 6) 팬 서비스

음악회라는 행사는 음악만을 얻으려 하는 현재의 방법에서 음악 이외의 사교와 친교의 장소가 되는 서구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를 느낀다.

음악회 중간에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주최측에서 제공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는 아무리 음악이 좋은 것이라고 하지마는 경직되고 긴장된 마음을 해소하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측에서는 청중에 대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신경을 쓴 것이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일이 청중을 계속 음악회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흡족한 적이 있다.<sup>36)</sup>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는 연주회 날 미리 도착한 관객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단원들이 공연 30분전에 로비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연스레 관객과 연주자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 속에 로비에는 93년 창단 연주회 때부터 지금까지 테마를 갖고 그래픽 및 연주회 사진을 전시하며 보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고 있다.

또한 휴식시간에는 ‘한라윈드 앙상블’ 자체 자원봉사자(스텝)들이 따뜻한 차와 시원한 음료도 제공해 많은 관객들이 즐겨 마신다. 참고로 자원봉사자들은 95년 5월 팝스콘서트 때부터 제주 최초로 음악 staff(스텝)으로 무대 뒤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서는 어릴 적부터 ‘한라윈드 앙상블’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 성인이 되어 스텝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 사례 1)

지난 5월 8일 저녁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공연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한라윈드 앙상블 연주회에서만 볼 수 있는 로비콘서트가 펼쳐진 것이다. 오카리나 중주단은 ‘메기의 추억’등 귀에 익은 음악으로 행사장에 일찍 도착한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36) 강문걸, 음악의 정신, 나라출판, 1999, P.43.

로비 한켠에는 한라윈드 앙상블 10년사 자료를 모아놓은 전시코너와 사진전이 마련됐다. 전시코너에는 팸플릿, 연주회 사진, 악보, 공연실황 음반을 선보였다. 사진전은 지난 98년부터 한라윈드 앙상블의 연주 장면 등을 카메라에 담은 흑백사진 연구회 핀이 준비한 행사였다.

연습실, 리허설, 무대 뒤의 풍경, 로비콘서트 등 핀 회원들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지칭한 한라윈드 앙상블 단원들의 모습을 담은 20여점을 전시해 놓았다.<sup>37)</sup>

## 7) 입장권의 유료화

국내 공연예술단체 공연의 입장객은 <표 9>에서와 같이 유료 입장객(16%) 보다는 무료 초대 입장객(84%)의 수가 월등히 많아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9년에 같은 방법으로 1,553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결과 (유료14%, 무료86%)보다는 유료 관객의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료 초대권 관객이 공연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연 예술계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초대권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한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대권 입장객이 유료 입장객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라윈드 앙상블’은 유료화를 1993년 창단 후 제 3회 정기연주회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 5,000원, 학생 1,000원으로 유료화 정착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객석 절반 가까이를 초대권 손님으로 채워온 현실에서 ‘한라윈드 앙상블’은 유료화로 지향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다. 제주도의 경우 40개 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4,241회의 공연에 입장객 수는 137,660명이었고 이 가운데 유료관객은 27%인 37,815명, 무료관객은 73%인 99,845명으로 국내 공연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는 높았다.<sup>38)</sup>

37) 진선희(기자), 케이크 없어도 신났던 10돌 생일상, 한라일보, 2003. 5. 11. 일자.

38) 제주도 문화 진흥원, 국내 예술단의 운영체제 현황 및 시사점(제주도립예술단 육성방안), p. 8.

**<표 9>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공연활동**

단 체 수	공연 횟수	관 객 수		
		계	유 료	무 료(초대)
1,678	14,378	10,239,687 (100%)	1,667,072 (16%)	8,572,615 (84%)

# 2002공연예술진흥기본 계획 부록, 문화관광부 2002 참조 재작성

### 8) 연주회 홍보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36.6%)와 “현수막, 포스터, 홍보 인쇄물 등을 통해서”(35.3%)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사관계자의 직접적인 권유를 통해서”(20.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7.8%)와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목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의 응답항목이 없어 예술인의 관람객 유치방안과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2000 문화향수 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화서비스/PC 통신/ 인터넷”을 통한 예술행사의 소식과 정보를 얻는다는 결과를 참고로 할 때 향후 정보통신의 발달과 연관되는 증가세는 높아 질 것으로 추정된다.<sup>39)</sup>

연주회 소식 듣는 방법은 13회 정기연주회에서부터 설문을 시작했다. 단연 친지로부터 듣는다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직 예매처 판매를 하지 않고 배포는 당일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단원들을 통해 연주회 소식을 듣는 가장 초보적인 공연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39) 한국예총제주시지부, 제주지역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2, p.13.

**<표 10> 연주회 듣는 방법**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친지로부터	13	9	12	10	9		14	7	8	8	9	4	103
신문	1	4	3	3	6			3	3		1		24
방송	1			3					1	1	1		7
플랜카드	2	6	2	2	4				2	3	2	3	26
포스터				5	4		15	5	3	4	1	2	39
프로그램							5					4	9
기타	44	43	42	19	16		14	22	10	27	4	14	255
계	61	62	59	42	39		48	37	27	43	18	27	

제주시가 지정한 게시판 34곳에만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는 현실로 39명이 포스터를 보고 연주회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은 연주회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포스터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은 예산문제로 현수막은 한 곳(제주도문화회관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만 부착을 하는데도 26명이 연주회 소식을 알리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면, 현수막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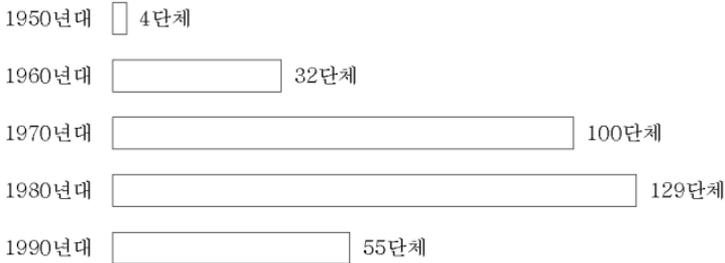
## IV.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발전적 운영 방향

### 1. 일본의 사례<sup>40)</sup>

#### 1) 창단

일본의 민간 아마추어 관악단 창단은 1970년에 전체의 30%가 1980년대에 39% 도합 65%의 단체가 창단을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악기가 오토메이션화가 되어 저가 악기가 대량생산을 하게 된 1970년대에서부터 많은 시민밴드가 탄생을 하게된 것이다. 일본 국내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관악기 연주 가능한 많은 연주자들이 배출되면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으로 개인들의 악기 구입이 용의 해지고 주5일 근무제로 여유있는 시간을 자기의 취미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 전국에 확산되어 오늘의 일본의 평범한 민간인들이 자의로 모여 운영하는 관악 연주단체들이 생겨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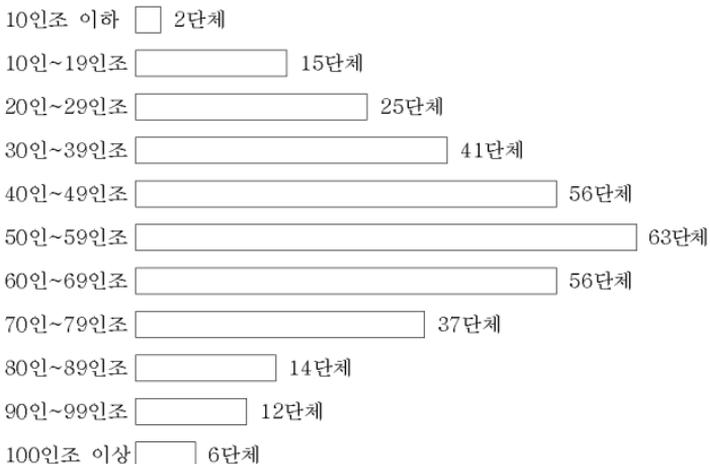


<그림 3> 일본 시민관악단의 창단 연도

40) IV의 <그림>에서 나타난 사실과 본문의 기술내용은 부록1 : 일본 시민밴드 관악단체 현황 참조.

시민 관악단의 규모도 100인조가 넘는 단체도 생겨나고 아마추어라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연주력을 갖춘 단체들의 활동은 여타 다른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수준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 2)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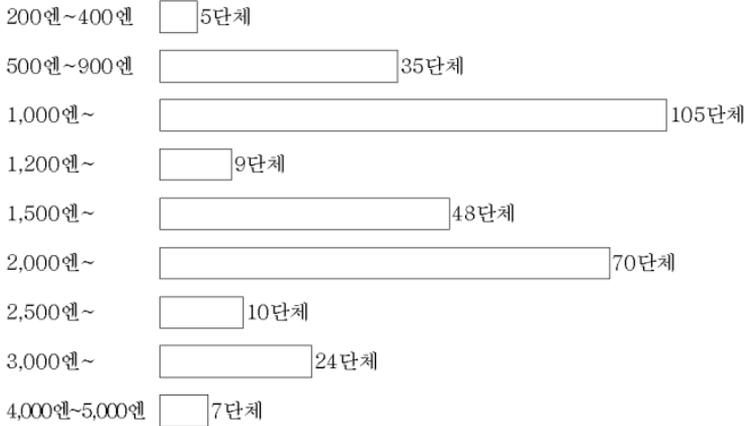


**<그림 4> 일본 시민관악단의 편성**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인조에서 100인조 이상의 시민관악단들의 악기편성도 50인조를 정점으로 피라밋 모양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조사된 단체 328개단체중 50인조의 편성단체가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40인조와 60인조의 단체가 17%씩 2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들 편성의 단체들이 연주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단원수이며 지방마다 확보할 수가 있는 연습장소를 일반 교실 한개의 크기로 수용되는 인원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3) 회비



**<그림 5> 일본 시민관악단의 개인 회비**

민간 단체의 회비는 그 단체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1인당 월회비로 1,000엔으로 정한 단체가 105개 단체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2,000엔으로 정한 단체가 70개 단체로 22%로 1,000엔과 2,000엔으로 정한 단체가 전체의 반 이상인 55%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기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액수를 정하는 단체도 있었으며 전연 회비가 없는 단체도 4개 단체가 있었다.

최고액수로는 5,000엔을 받는 단체도 있었으며 이 자료는 일반 사회인의 회비만의 기록이다.

학생들에게는 차별화 하는 회비를 정한 단체들도 많았으며 연회비로 일시불로 받는 단체들은 12개월로 나누어 기록했다.

#### 4) 연습장소

일본 시민관악단의 연습장소.

縣,市,區,町 등 관청의 공공건물 중에 있는 연습이 가능한 장소중 시민회관, 문화회관, 공민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센터, 청소년홀,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공민관, 음악실, 노동회관, 연수센터, 환경개선센터, 트레이닝센터, 음악연습실, 학습센터 등을 망라한 공간을 시민관악단의 연습실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조사된 313개 단체 중 62%의 시민관악단이 관청에서 제공해준 장소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악수준을 가늠하는 자료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204개소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79개소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38개소

#### <그림 6> 연습장소

그 다음이 학교의 음악실, 강당, 체육관등 전체의 24%를 차지 하고있는 것 과 같이 사회 여러 곳의 공공건물 중 야간이나 또는 주말을 이용하게 하여 유휴 공간을 극대화하여 사회간접 자본을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수 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도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연습실의 11% 중에서는 신문사, 방송국, 악기회사의 연습실, 사찰 등 적극적으로 민간 연주단체들을 돕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장을 사회체육을 위한 시설로 방과후나 주말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의 강당이나 음악실을 민간단체들이 이용하는 시민관악대를 위한 연습장소로 개방을 한다면 연습장소가 없는

연주단체들에게 활력을 줄 수가 있으며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아마추어 음악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5) 정기 공연 현황

정기연주회는 일년에 한번 하는 단체가 235개 단체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록은 정기 연주회를 한 번 하는 것이 민간 시민 관악단들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말해 주는 자료로 1년에 한번도 정기연주회를 열지 못하는 단체가 63개 단체로 19%나 된다는 것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회 이상 정기연주회를 여는 시민 관악단은 9%인 30개 단체이다.

연간 1회의 정기연주회	<input type="text" value="71"/>	71%
연간 2회의 정기연주회	<input type="text" value="9"/>	9%
정기연주회를 열지 못하는 단체	<input type="text" value="19"/>	19%

<그림 7> 정기연주회

## 2. 일본 시민관악단과의 비교

### 1) 운영

일본의 시민 관악단의 편성은 10인조의 최소편성의 관악단에서 부터 100인조 이상의 대형 관악단까지 다양한 인원으로 만들어진 관악단들이 활약하고 있다. 50인조에서 59인조의 관악단이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라윈드 앙상블’은 일본의 시민 관악단의 편성 비교에서는 17%인 40인조에서 49인조의 편성에 해당된다.

일본의 시민 관악단의 거의 전부가团员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회비의 액수도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월회비는 1,000엔이 전체의 33%에 해당되는 단체가 정하고 있었다.

한라윈드 앙상블은 월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목적성 회비만 받고 있는 것이 '한라윈드 앙상블'이다.

정기연주회 시에는 초대권 3장 회원권(유료권 5,000원) 2장을 단원 각자에게 주고 유료회원권 2장이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야하는 의무이다.

1인당 10,000원의 회원권 판매대금중에서 연주회 당일 저녁식사로 사용(5,000원)하고 연주회가 끝난다음 회식비로 나머지 액수(5,000원)를 사용하고 있다. 연주회 일체의 경비는 단 자체에서 마련을 하고 있다.

'한라윈드 앙상블'은 정관이 없는 단체다.

사안에 따라 그때마다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단원전체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고 있다.

### **사례 1. 악기의 분실에 대한 책임**

악기(Piccolo)를 분실한 사건을 해결한 결과를 보자

분실한 단원이 전체의 50%를 배상하고 음악감독이 나머지 50%중에서 50%(전체의 25%)를 책임지고 나머지 50% 중에서 그 반인 전체의 12%를 단무장이 그 나머지 12%는 악기계와 인스펙터가 배상을 하고 있다.

단체에서 구입한 모든 악기에서부터 악보 및 기타 비품(보면대, 의자 등) 등의 분실은 이렇게 당사자와 간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 **사례 2. 간부의 선출**

단무장을 비롯하여 간부의 선출은 필요에 따라 단원들의 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그때마다 결정을 하고 있다.

지금 음악감독 1명 단무장, 1명 총무, 1명 인스펙터, 1명 악기계, 3명(목관, 금관, 타악기), 악보계 2명으로 행정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연습

과 연주 등 무대행사에 대한 운영은 지휘자 1명, 악장 1명, 수석연주자 5명 (목관악기 2명, 금관악기 2명, 타악기 1명) 악보계 2명으로 여타 단체에 있는 운영위원회나 후원회가 없는 단체로 다른 단체와 다른 운영체제를 갖춘 단체였다. 그러면 한라윈드 앙상블은 어떤 방법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가하면 우선 악보구입 문제이다.

곡당 5분 연주할 수 있는 곡인 경우 보통 100,000원에서 150,000원 정도이다. 한번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필요한 곡이 보통 10곡쯤 된다. 악보 구입비가 최소한 1,500,000원이 필요하다.

‘한라윈드 앙상블’은 후원회는 결성 되어있지 않지만 현물로 후원을 해주는 독지가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일본에는 한라윈드 앙상블에게 연간 10곡의 악보를 구입해주는 이름도 없는 모임(7명)이 있다.

창단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악기의 노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악기 크리닉(수리)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 지방에서 40인조 이상의 단체가 한번 전체 악기를 크리닉을 하기 위하여서는 제주도에서는 할 수가 없다. 국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실시했으나 악기 크리닉 수준이 문제가 되어 결국 외국으로 눈을 돌린 것이 일본의 우수한 관악기 수리회사와 친분을 맺고 매해 일본의 악기수리사가 직접 제주에 찾아와 자원봉사 차원의 악기 크리닉을 하고 있다.

## 2) 연습장소

일본의 시민 관악단의 대다수가 거의 관청에서 관리하고있는 공공 장소에서 연습(62%)을 하고 있고 학교 건물(24%)이 그 다음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관청이나 학교가 간접으로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 관악단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시민관악단이 관청이 제공해 주는 건물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한 곳도 없었다.

모든 단체들이 스스로 예산을 마련하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의 음악실을 이용하는 단체들은 지휘자나 관계된 단원들의 모교나 재직하고 있는 직원과의 관계가 있는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 3) 정기 연주회

일본의 시민관악단은 연간 정기연주회 한번을 하는 단체가 전체의 71%나 된다. 물론 정기연주회를 1년에 한번도 열지 못하는 단체(19%)도 있다. 그만큼 정기연주회를 한번 여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의 모든 단체가 힘들다는 증거이지만 ‘한라월드 앙상블’은 정기연주회를 일년에 3번 팜스콘서트 1번 프롬나드 콘서트 1번 등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주최해서 여는 연주회가 연간 5번이나 되는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밴드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10년 동안에 연습 장소를 옮긴 것이 모두 6번으로 2003년 현재 이 단체는 연습 장소가 없어 필요에 따라 연습장소를 임대해서 연습하고 있다. 앞으로 연습장소를 해결하는 것이 이 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이런 방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공 연주회장이나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 야간에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의 운동장을 방과 후나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듯이 교실 중 연습이 가능한 연습실 개방을 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면 우리나라의 시민관악단들도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시지역의 인구가동으로 시내에 위치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 교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은 민간단체들이 연습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체운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 3. 발전적 운영 방향

#### 1) 발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연간 5회의 정기적인 음악회를 여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가 안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만이 있고 후원회가 없음은 재원확보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단체가 10년간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현물 지원을 해 주는 후원자가 있기에 지금의 단체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

악보구입을 지원해주는 그룹(외국의 단체 혹은 개인) 악기수리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외국의 악기수리회사의 헌신적인 지원 등이 이 단체의 운영을 가능하게는 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해주는 어떤 기구(재단이나 후원회)가 있어야 만이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이 뒷받침 될 수가 있다. 사정만 허락한다면 이 단체를 재단화를 하는 것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 2) 연습공간의 확보

이 단체가 창단 후 제일 취약한 부분이 연습공간의 확보이다.

창단 한 다음해인 1994년부터 16개월간 무려 이사를 공식적으로 4회, 비공식적으로 3회로 모두 7번의 연습장소를 옮겨 다닌 것이다.

비공식적인 이사는 연습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해진 연습일에 모이기는 했어도 연습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출석을 확인하고 행사 예정을 알리는 단순한 모임장소를 3번이나 옮겨 다닌 것이다.

2003년 초에도 연습장소가 없어 이곳 저곳 연습장소를 옮겨 다니고 있으면서 정기적인 행사를 열고는 있으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연습장소를 확보 해야 하는 것이 이 단체의 가장 큰 급선무이다.

### 3) 연주 인력의 확보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연주악보에 작곡가(편곡자)가 표시한 악기를 모두 갖추고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악기 구성면에서도 논술을 했지만 몇몇 악기의 연주자를 확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연주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 4) 체계적인 악기 관리

일본의 한 관악기 수리회사가 이 단체의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클리닉을 일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실시 해주고 있으나 타악기는 아예 클리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기는 노화 현상으로 악기의 연주 질이 떨어지고 있는 후속조치(악기의 교환 혹은 부속의 교환)를 취해야 한다.

1999년에 이 단체가 보유한 타건 악기(실로폰)의 건반의 음이 변해 클리닉을 악기 구입회사(서울소재)에 의뢰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제조회사(네델란드)에 직접 연락하여 건반만을 새로 구입한 예는 우리나라의 타건 악기 수리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민간 관악단 중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타악기 인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단체의 고민은 제대로 된 연습실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악기 보관실을 갖지를 못한 것은 고가의 악기들의 수명을 스스로 알면서도 단축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상적인 악기관리를 위한 악기보관실의 확보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 5) 미래지향적인 레퍼토리의 확충

지금 세계 관악곡 악보시장의 신곡 출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외국의 악보상과 계약을 하고 악보를 구입하고 있는 이 단체는 우리나라

라에서는 앞서고 있는 방법을 택하고는 있으나, 미국과 일본에서 출판하고 있는 악보에 편중되고 있다.

유럽과 영국 러시아 등 동구권의 관악곡 출판 소식은 입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형편을 감안하여 관심 있는 여러 단체와 업자가 협동을 하여 우리나라의 관악곡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를 말아야 할 것이다.

## 6) 발전적인 공연 마케팅의 실시

이미 이 단체는 공연마케팅을 위한 시장조사, 입장객 통계 등을 설문을 통하여 매 정기 연주회 때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관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정기적인 공연을 알리는 홍보전략 등을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물의 제작이나 연간 공연을 알리는 유인물의 제작과 시즌 티켓(년 간 정기적인 행사를 한번에 판매하는 회원제)을 판매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힘들면 타 단체와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공연장과의 계약에 의한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회원권 판매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법보다 한 단계 발전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제주도의 서양음악의 유입과정을 우리나라의 서양음악 유입과정과 비교하면서 변천해 가는 모습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여 제주도의 학교음악의 변천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제주도의 서양음악 특히 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 운영과 활동을 조사하였다.

과거의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에서 중앙의 문화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정객들의 유배지로 인식되어 왔을 뿐 빈곤한 생활 속에서 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8.15 해방 후 새로운 학제에 의한 중학교(사립)가 제주도에 개교가 되면서도 중학교에 본격적인 관악대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비단 제주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10인조 전후의 학교관악대가 활동을 했으나 지금 말하는 소편성인 학교관악대가 아닌 주어진 악기만으로서의 합주였었다. 필요한 악기는 물론이지만, 필요한 악보조차 없었을 때의 크립활동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

6.25동란 이후 한 외국인에 의한 전문적인 지도와 악기, 악보가 공급되어 비로서 학교관악대가 활동하게 된다. 능력 있는 지도자, 필요한 악보,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갖추어져야만 관악대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1970~1980년대에 와서야 제주도는 경쟁적인 관계를 갖게 된 학교관악대가 탄생하여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관악대 증, 광복 후에 활동한 학교관악대인 효돈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증문중학교, 조천중학교, 표선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관악대가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공립학교인 경우 적절한 지도교사 수급이 안 되었으며 필요한 악기의 조달이 계속되지 못한 것 등이 겹쳐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1982년 창단한 탐라관악합주단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민간 관악단으로 1985년 제주시립관악단으로 개칭,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87년 제주시립교향악단이 되었다.

1983년 영진육아원 원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영진윈드 앙상블’은 3회의 정기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1993년 제주출신 관악인들이 모여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의 창단을 제의하여 도 13개 고교관악대 출신들을 주축으로 시민밴드를 만들어 서로가 직업을 달리하고 있는 음악애호가 및 기악연주자들이 외부와의 친선교류연주를 통하여 음악사절로서의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일본과는 4회에 걸쳐 한일친선교류연주회를 여는 등 시민들에게 우렁찬 선율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시민밴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연간 4회의 정기연주회 1회의 팝스콘서트 등 평균 12회의 행사를 소화하고 있으며 45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은 더욱 강해졌다.

그 안에는 시민밴드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그리고 아주 큰일과 세밀한 작은 일들을 균형있게 조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비영리조직을 관리하는 모든 단체에 포함된다.

관객을 향한 새로운 아이템 창출, 매년 새로운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며, 통계와 마찬가지로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고정관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꾸준한 설문지를 토대로 고정관객을 단지 프로그램 발송으로 그치지 않고 설문지 결과와 통계자료 등이 지금의 고정팬을 확보하는 계기가 관제마케팅의 시작이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얻은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고, 기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주도 초등학교의 기악교육은 학원의 강습에 의한 극히 일부의 악기 뿐이었으며 어떤 악기의 합주단도 없음을 알았다.

대학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악합주단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기악교육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 초등학교에서 합주단체가 만들어 질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주도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관악제가 우리나라의 관악제를 대표하는 관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악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제주도에 전문적인 악기점조차 없어 간단한 악기수리도 서울로 보내야 하는 형편에서 관악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학교 관악대가 피라밋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역삼각형으로 초등학교에는 단 한개의 연주단체도 없었으며 중학교는 1곳 고등학교 13개교 관악대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13개교 관악대가 정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제주도에는 고등학교 관악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 논문 자료 조사를 할 때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관악대가 정기 교원인사교류를 하면서 배치된 신입 음악교사가 취임하고는 한 학기를 보내지 못하고 새로운 발령을 받고 이임함으로써 이 학교는 행사참여는 고사하고 관악대 자체가 와해 돼 버리고만 사례가 이번 본 논고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래도 위에 적은 학교는 활동이라도 했던 관악대였었지만 창단만 하고 만 학교에다가 2002년도 신학기에 새로운 예산으로 새롭게 악기까지

구입했으나 지도교사의 이동으로 한번 소리도 내보지 못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정책의 일관성 없는 결과라 하겠다.

사립학교는 그렇다고 해도 공립학교 관악대는 예산배정의 원칙이 없었다. 최소한 표준 편성에 의한 악기구입이 이루어져 전체 학생수에 비례한 소편성, 중편성, 대편성으로 나뉘어 효과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학교 지도교사의 이야기 중 새롭게 악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정기적인 악기수리를 한다면 예산 배정을 안 해준다는 경험담은 단적으로 제주도 학교 관악대가 정상적으로 악기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매해 평균 13개 고교에서 5사람의 졸업생을 배출한다면 65명이라는 악기연주가 가능한 연주자가 생긴다.

이런 기초적인 인적 자원으로 민간 시민밴드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1993년 새로운 민간관악대가 탄생하면서 시민밴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걸어온 10년 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면서 아직 제주도에서 민간연주단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되는 결과였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기간 중에 시민밴드 ‘한라원드 앙상블’은 사용하고 있었던 연습장소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이곳 저곳 연습장소를 옮겨 다니는 현실은 한 시민단체가 정착되어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해준 사례이다. 그래도 이 단체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 민간관악대는 창단연주만 하고 운영이 여의치를 못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민간관악단의 자료를 수집 했으나 관계된 단체에서 자료라고

해서 구할 것은 각 시도지부의 주소와 책임자 연락처뿐이었다. 자료라고 하기엔 곤란한 간단한 기록만으로는 비교 관찰을 할 수 없었으나 일본의 민간 관악단 자료는 서점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슴 아픈 비교였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학교관악대나 일반 시민밴드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는 새로운 방안이란 인적자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후원자. 연습을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연습 공간, 실력과 열의가 있는 지도자가 확보되어야 하며, 연습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연습클리닉을 위한 트레이너제도 또는 선진국인 다른 외국이나 국내의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연수과정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만이 더욱 질이 높은 음악 단체인 시민밴드로 정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문칠, 음악의 정신, 나라출판, 1999.
- 金玉姬, 濟州島 辛丑年教難史, 天主教 濟州教區, 1980.
- 李宥先, 韓國洋樂百年史, 中央大學交, 1976.
- 李忠雨, 京城帝國大學, 多樂園, 1980.
- 이향숙, 가곡의 고향, 한국문원, 1998.
- 제주인명사전, 제민일보사, 1994.
- 濟州道誌(下卷),濟州道,1982.
- 한국예총 제주도지회, 제주문화예술백서, 1998.
- 앨빈 H.레이스 : 정훈상 역, 성공적인 예술경영, 세종출판사, 1997.
- 피터 드리커 : 현영하 역, 비영리 단체의 경영, 한국경제신문사, 1995.

### 2. 논문

- 오승직, 제주도지방의 합창활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李尙哲, 文化觀光 이벤트로서의 濟州國際管樂祭 活性化 方案,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6.
- 李善文, 濟州道管樂의變遷過程에 關한調查研究, 京畿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4.
- 황혜영, 공연장의 관객개발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 보고서 및 자료집

제주도문화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립예술단 운영체제개선토론회, 2003. 4.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현황(단체, 시설), 2003.

제주시, 제주시민비전, 2000.

한국예총제주시지부, 제주지역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 2002.

한국공연예술 매니저먼트 협의회, 지역문화 활성화와 공연예술의 역할, 2001.

### 4. 간행물

강문칠, 제주음악의 개척자 김국배,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2002. 9.

\_\_\_\_\_,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주문화예술  
재단, 삶과 문화, 2003. 3.

김오순(기자), 한라월드 앙상블 창단연주회, 제주일보, 1993. 5. 22.

오수훈(기자), 음악사랑이 우리를 무대위로, 문화일보, 2002. 2. 5.

진선희(기자), 딱심 있는 연주로 일궈온 10년, 한라일보, 2003. 5. 12.

제주도 교육위원회, 제주교육연혁지, 1987.

현길인, 제주문화예술의 전통성과 세계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2001. 12.

### 5. 해외자료

市民吹奏樂團, 가이드 BOOK, 株式會社 音樂之友社, 1994.

Band Journal 2003 February, 株式會社, 音樂之友社, 2003.

### 6. 팸플릿, 기타

제 1회 전도 학생 종합 예술제, 1954. 11. 25.

- 제11회 음악 감상회(제주 미국 공보원), 1958. 7. 23 .
- 제5회 한라문화제(예총제주도지부), 1966. 11. 22 .
- 극빈아동돕기 자선의 밤(가로등 크럽), 1967. 5. 14 .
- 어머니날 기념 예술제(제주여자고등학교), 1967. 5. 20 .
- 제주신성여자고등학교 서울중앙여자고등학교 교환음악회, 1967. 9 .
- 개교16주년 오현브라스 앙상블 연주회, 1967. 9. 29 .
- 제 2회 제주도 민족 예술 제전, 1968. 4. 6 .
- 제 2회 제주 예술제, 1963. 10. 11 .
- 제 4회 Vivace Club 음악 발표, 1972. 3. 18 .
- 제주 YMCA 한미재단 순회 음악 연주회, 1972. 3. 28 .
- 제주간호전문학교 나이팅게일제, 1974. 6. 15 .
- \_\_\_\_\_ , 1975. 4. 26 .
- 제주 YWCA 어버이날 축하 음악회, 1976. 5. 8 .
- 제 7회 YWCA 정기 공연, 1978. 5. 11 .
- 제 6회 제주 Glee Club 합창연주회, 1978. 5. 26 .
- 제 1~24회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및 각종 팝스콘서트,  
국내·외 연주회 프로그램, 1993. 6. 7~2002. 12. 24 .
- 시민밴드 ‘한라윈드 앙상블’ 연습일지, 1993. 5. 1~2002. 12 .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Jeju's Western Music - Focusing on the Operation and Activity of the Civil Band 'Halla Wind Ensemble' -**

**Sang-mi Kim**

Majoring in Art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Art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n-yeong 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esent status of Jeju's music and the plan for its development, focusing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Jeju's western music and the operation and activity of the civil band 'Halla Wind Ensemble'.

The historical status and present situation of Jeju's music were identified in the historical view from the early introduction process of western music through music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after the Korean War up to now (6·25). In these historical flows of Jeju's western music, 'Halla Wind Ensemble' is now developing lively activities, and its operation and activity should be discussed to find a new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music.

Because of its peculiar location as an island,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to Jeju was rather late when compared to other provinces, but the activity of school brass bands seemed pretty active.

Since the Liber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Jeju's music has gone through prosperity and adversity, and recently it seems to have regained lively activities owing to open music groups such as 'Halla Wind Ensemble', which consists of civil bands.

It was confirmed that 'Halla Wind Ensemble', which was investigated intensively in this study, had attained the results of more lively activities than any other groups for the past ten years, and also contributed to the activation of Jeju's music through changing its direction.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to be improved upon for the operation and activity of 'Halla Wind Ensemble'. The more developmental operation direc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 system must be implemented to secure the funds required for five periodic performances a year. To make this group a foundation may be one way.

Second, an appropriate place should be secured for efficient and productive practicing.

Third, the performers who can play all instruments signed on the music score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best performance.

Fourth, an instrument storage space that maintains proper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systematic control of instruments is needed for the normal management of the instruments.

Fifth, the plan for activating the wind music market in Korea must be promot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nterested groups and traders for promising repertoires.

Sixth, more developed ways should be found such as producing publicity materials, leaflets publicizing yearly performances, season ticket sale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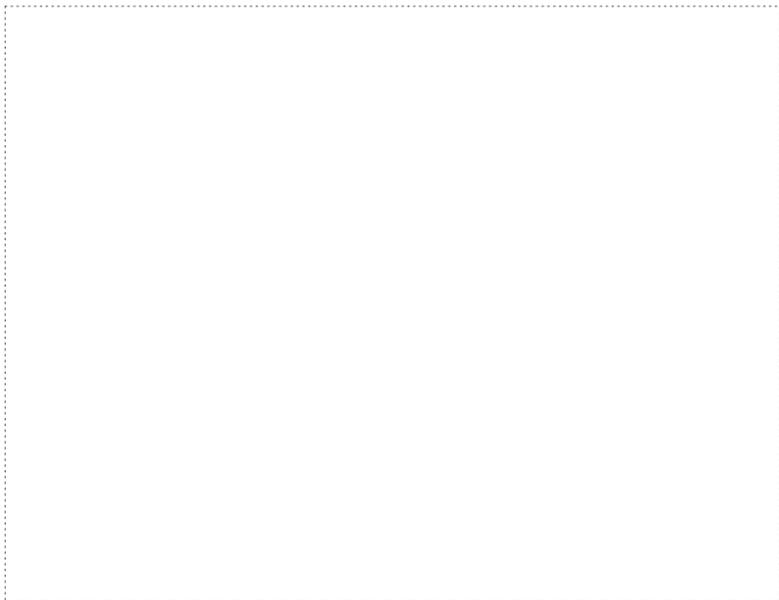
Lastly, as for practice methods, these methods can be proposed such as the trainer system for professional practicing clinics or development of training procedures in other advanced countries or domestic groups.

Even though this study might have logical weaknesses unfortunately due to few precedent studies or cases, it is significant that it suggested the direction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civil band 'Halla Wind Ensemble' through the transition process of Jeju's western music.

부록 1 : 제주 4·3사건(1948년) 제2연대 선무공작대에서 선무용으로 불려진 악보

## 그리운 그 옛날

작사·작곡 이 기 형



[註] 이기형(李琪亨) : 1924. 3. 9 출생, 1949년 2월 작곡.

## 부록 2 : 일본 시민밴드 관악단체 현황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연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정기연주	연간행사
<b>北海道 函館地區</b>									
知内吹奏樂團	1990년	15명	26세	1,000엔	매주수요일	19:00-21:00	高校音樂室		3회
函館新星吹奏樂團	1985년	26명	22.8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18:00-21:00	移動練習	1회	4회
函館심포니밴드	1977년	40명	27세	1,000엔	매주월,금요일	19:00-21:00	加賀産業社	1회	2회
函館브라스소사이어티	1990년	32명	24세	500엔	매주월요일	19:00-22:00	市廳青年센터	1회	4회
<b>北海道 日釧地區</b>									
虻田錠民吹奏樂團	1987년	28명	30세	500엔	매주월,목요일	19:00-21:00	마을센터	1회	5회
伊達吹奏樂團	1974년	39명	24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19:30-21:30	市體育館	1회	5회
室蘭브라스올케스트	1990년	45명		1,000엔	매주화,목요일	19:00-21:00	아마하會館	1회	7회
<b>北海道 札幌地區</b>									
札幌심포니밴드	1971년	70명	24세	1,500엔	매주토요일	17:30-21:00	마을센터	1회	3회
札幌同仁吹奏樂團	1988년	35명	25세	500엔	매월2,4일요일	13:00-16:00	移動練習		3회
札幌靑少年吹奏樂團	1984년	45명	22세	1,000엔	매주금,토요일	18:00-21:00	區民센터	1회	6회
札幌유즈吹奏樂團	1988년	71명	20세	1,500엔	매주수,금요일	18:00-	區民센터	1회	6회
第一自由吹奏樂團	1993년	12명	27세	500엔	매주수요일	18:00-20:45	初等學校		2회
<b>北海道 旭川,北見地區</b>									
旭川交響吹奏樂團	1972년	65명	19세	500엔	매주일,월요일	17:00-21:00	中央公民館	1회	3회
網走마린시티취주악단	1991년	45명	24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初等學校	1회	7회
사로마吹奏樂俱樂部	1990년	15명	23세	1,000엔	매주수요일	19:00-	町民센터		6회
北見交響吹奏樂團	1970년	59명	24.3세	1,5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1:00	町트레닝센터	1회	4회
브래덴	1980년	17명	33세	1,000엔	매주수요일	19:00-22:00	公民館대홀		2회
美幌吹奏樂團	1975년	30명	25세	년4천엔	매주수,토요일	19:00-21:00	町트레닝센터	1회	3회
순속곰돌이음악대	1988년	28명	24세	500엔	매주월,수요일	19:00-21:00	町文化센터		6회
釧路市民吹奏樂團	1975년	65명	23.6세	1,000엔	매주목,일요일	17:00-21:00	市文化會館		5회
釧路町吹奏樂團	1984년	42명	22세	1,000엔	매주수,일요일	19:00-22:00	土井빌딩3F	1회	7회
根室市民吹奏樂團	1974년	40명	28세	1,000엔	매주화,목요일		市文化會館	1회	6회
帶廣吹奏樂硏究會	1972년	40명	24세	2,000엔	매주화,금요일	19:00-21:00	學校體育館		2회
帶廣靑少年吹奏樂團	1981년	50명	24세	3,300엔	매주일,수,토	18:00-21:30	專用練習室	1회	5회
<b>東北地方 宮城縣</b>									
泉심포니서클	1975년	62명	24.8세	1,200엔	매주수,일요일	19:00-21:00	市靑少年홀	1회	6회
仙臺吹奏樂團	1968년	72명	27세	2,000엔	매주수요일	18:00-21:00	靑年文化센터	1회	5회
多賀城吹奏樂團	1980년	32명	27세	1,5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文化센터	1회	6회
名取交響吹奏樂團	1983년	60명	25세	2,0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市民會館	1회	5회
南六軒丁윈드앙상블	1992년	70명	25세	필요액	부정기연습		東北學院대홀	1회	2회
<b>東北地方 岩手縣</b>									
양상블스페이	1992년	13명	31세	1,200엔	월2회토요일	19:00-21:00	町文化센터홀		2회
釜石市民吹奏樂團	1978년	50명	30세	1,000엔	매주수,그요일		市民文化會館	2회	8회
衣川吹奏樂團	1986년	35명	24세	1,000엔	매주화,토요일	19:00-21:00		2회	4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연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창기연주	연간행사
花薔심포니밴드	1992년	35명	21.3세	2,000엔	매주토요일	17:00-21:00	都市會館	1회	3회
宮古吹奏樂團	1963년	50명	24세	500엔	매주월,수요일	19:00-21:00	初等學校	1회	3회
盛岡시타브리스	1987년	75명		1,500엔	매주화,토요일	18:00-21:00	市公民館	2회	6회
盛岡심포니윈드오케	1989년	36명	21세	3,000엔	매주화,목토	18:00-21:00	市公民館	1회	6회
盛岡吹奏樂團	1968년	60명	26세	1,500엔	매주수요일	18:00-21:00	市公民館	1회	2회
盛岡브라스앙상블	1989년	13명	24.7세	500엔	매주월요일	19:30-21:30	中學校音樂室	1회	2회
<b>東北地方 青森縣</b>									
青森吹奏樂團	1978년	65명	23세	2,000엔	매주화요일	18:00-22:00	市民文化홀	1회	6회
R45吹奏樂團	1988년	15명	22세	833엔	매주화,목요일	19:00-21:00	市靑少年홀		4회
弘前市吹奏樂團	1986년	76명	26세	1,500엔	매주일요일	17:00-21:30	市文化센터	2회	5회
<b>東北地方 秋田縣</b>									
秋田吹奏樂團	1974년	60명	25세	1,000엔	매주수요일	18:00-21:30	市中央公民館	1회	6회
大館吹奏樂團	1981년	45명	25세	1,000엔	매주수,금요일	19:30-21:30	市交流센터	1회	5회
<b>東北地方 山形縣</b>									
酒田吹奏樂團	1971년	55명	24세	2,0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1:00	市文化센터	1회	5회
寒河江吹奏樂團	1979년	40명	24세	1,000엔	매주목요일	19:30-21:30	市文化센터	1회	6회
新庄吹奏樂團	1975년	45명	25.5세	1,000엔	매주목,토요일	18:00-21:30	環境改善센터	1회	10회
天童市吹奏愛好會		42명		750엔	매주수,토요일	19:00-21:30	市中央公民館	1회	4회
村山市民吹奏樂團	1991년	30명	25세	500엔	매주토요일	19:30-21:30	市民會館	1회	5회
山形吹奏樂研究會	1974년	58명	24.7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18:30-21:30	市公民館	1회	6회
米澤吹奏愛好會	1971년	80명	26세	1,500엔	매주화,금요일		市文化센터	1회	5회
<b>東北地方 福島縣</b>									
會津심포니앙상블	1977년	20명	28세	3,000엔	매주월,목요일	19:00-22:00	町福祉센터	1회	1회
郡山吹奏樂團	1973년	65명	27.5세	1,500엔	매주화요일	18:00-21:00	市民文化센터	1회	6회
須賀川吹奏樂團	1979년	38명	23세	1,5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1:00	市文化센터	1회	6회
福島市民吹奏樂團	1970년	47명	23세	700엔	매주화,목요일	17:30-20:30	市音樂室	1회	7회
梁川交響吹奏樂團	1984년	62명	28세	1,000엔	매주화,토요일	19:00-21:00	町改善센터	1회	5회
失吹音樂團	1993년	36명	17세	3,000엔	매일제2트	14:00-17:00	中央公民館	1회	5회
<b>關東地方 新潟縣</b>									
柏崎市吹奏樂團	1981년	50명	23세	1,500엔	매주화,금요일	19:00-22:00	워크브라더	1회	3회
三條市吹奏樂團	1975년	70명	23세	2,000엔	매주화,금요일		市公民館	1회	7회
新發田市吹奏樂團	1991년	26명	24세	2,000엔	매주수요일	19:0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3회
上越市民吹奏樂團	1982년	55명	22-23세	1,500엔	매주화,토요일	19:0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3회
十日町市民吹奏樂團	1974년	55명	27세	1,000엔	매주화,목요일	19:00-21:30	市民會館홀	1회	8회
長岡市吹奏樂團	1973년	65명	23세	1,000엔	매주화,목요일	18:30-21:00	中學校音樂室	2회	3회
新潟윈드오케스트라	1976년	50명	23세	2,500엔	매주수,일요일	18:30-21:00	音樂文化會館	2회	4회
<b>關東地方 群馬縣</b>									
伊勢崎市吹奏樂團	1976년	54명		3,000엔	매주수요일	18:00-22:00	市民프라자	1회	4회
太田市吹奏樂團	1976년	40명	28세	2,000엔	매주토요일	19:00-21:00	市勤勞會館	1회	4회
高崎市民吹奏樂團	1972년	80명	25세	3,000엔	매주목요일	19:00-21:40	群馬심포니홀	1회	4회
前橋市民吹奏樂團	1985년	75명	24세	3,000엔	매주화요일	18:00-21:00	中央公民館	2회	9회
<b>關東地方 山梨縣</b>									
甲府市民吹奏樂團	1967년	52명	26세	2,000엔	매주수,토요일	18:30-22:00	市立公民館	1회	4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연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창기연주	연간행사
<b>關東地方 栃木縣</b>									
足利市民吹奏樂團	1971년	60명	25-26세	2,5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5회
宇都宮市民吹奏樂團	1972년	65명	34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19:30-21:30	市文化會館	1회	5회
宇都宮音樂集團	1992년	62명	22.5세	3,000엔	매주수요일	18:30-21:30	市文化會館	1회	3회
宇都宮브라스소사이티	1979년	26명	23세	5,0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1:30	倉田屋3F	1회	3회
小山市交響吹奏樂團	1980년	53명	23.4세	1,000엔	매주일요일		市公民館	2회	5회
佐野吹奏樂團	1974년	69명	25세	2,000엔	매주금요일	20:00-22:00	工業團地會館	2회	8회
眞岡윈드오케스트라	1993년	60명	25세	1,250엔	매주금요일		市民會館	1회	3회
<b>關東地方 埼玉縣</b>									
양상블吹奏樂團	1980년	65명		2,000엔	매주일요일	09:00-12:00	文化센터	1회	9회
岩槻高校OB吹奏樂團	1993년	30명	21세	1,000엔	매주일요일	14:00-18:00	高校音樂室	미정	미정
大宮市民吹奏樂團	1991년	30명	21세	1,0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市文化센터		4회
桶川市民吹奏樂團	1978년	45명	26.5세	1,500엔	매주목,토요일	18:30-21:00	公民館會議室	1회	6회
加須-騎西吹奏樂團	1989년	35명	30세	1,000엔	매주토요일	19:00-22:00	커뮤니티센터	1회	4회
川口윈드양상블	1979년	51명	28.5세	2,000엔	격주토,일요일	18:00-21:30	靑少年會館		3회
川越市吹奏樂團	1976년	64명	23세	2,000엔	매주토요일	18:30-21:00	初等學校講堂	1회	5회
北本市市民吹奏樂團	1979년	32명	25세	1,200엔	매주일요일	18:00-21:30	커뮤니티센터	1회	3회
久喜市民吹奏樂團	1982년	45명	23세	1,000엔	매주토요일	19:00-21:00	市中央公民館	1회	3회
CRYSTAL WINDS	1995년	13명	18세	500엔	매주일요일	17:30-21:30	市文化센터		1회
鴻巣吹奏樂團	1985년	52명	27세	1,000엔	매주일요일	17:00-21:00	市文化센터		3회
杉戸中OB吹奏樂團	1988년	65명	18세	1,000엔	월1회	시간연습	中學校音樂室		2회
SPREAD EAGLE	1992년	25명	22.5세	1,000엔	매월1.3일요일	13:00-17:00	市東體育館		3회
草科市民吹奏樂團	1979년	40명	25세	1,250엔	매주수요일	17:00-21:30	中央公民館		3회
新座市民吹奏樂團	1991년	7명	20세	1,000엔	매주일요일	13:00-17:00	市公民館		3회
鶴ヶ島市民吹奏樂團	1993년	20명		1,500엔	매주화요일	18:30-21:30			
所澤市民吹奏樂團	1976년	90명	25세	1,5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市民會館	1회	5회
東埼玉吹奏樂團	1976년	50명	24세	2,000엔	매주일요일	13:00-17:00	縣立靑年의집	1회	4회
東松山市윈드양상블	1985년	70명	25세	1,5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中學校體育館	1회	4회
<b>關東地方 茨城縣</b>									
茨城管樂合奏團	1990년	30명	18세	2,0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市民센터	2회	3회
古河吹奏樂團	1969년	65명	30세	800엔	매주2회	19:00-22:00	市公民館	1회	5회
筑波研究院吹奏樂團	1984년	110명	27세	1,500엔	매주월요일	19:00-22:00	市公民館	1회	5회
土浦윈드양상블同好會	1989년	25명	25세	2,500엔	매주화요일	19:30-21:30	龜城프라자홀		2회
常陸太田市市民吹奏樂團	1978년	50명	25세	1,5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市民交流센터	1회	5회
水戸-윈드오케스트라	1992년	30명	21세	2,000엔	매주금요일	19:00-21:00	移動練習	2회	2회
水海道윈드양상블	1978년	41명	25세	1,000엔	매주수요일	18:30-21:00	市民會館	1회	4회
<b>關東地方 千葉縣</b>									
일하모닉吹奏樂團	1974년	95명	21.5세	1,000엔	매주수,일요일	17:00-21:30	中央公民館	1회	3회
市川交響吹奏樂團	1934년	80명	25세	1,500엔	매주화,금요일	18:45-21:00	小學校公民館		6회
市原市民밴드	1977년	25명	27세	무료	매주금요일	18:30-21:00	八幡公民館		4회
印西윈드양상블	1982년	35명	26세	2,0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1:00	中央公民館	1회	4회
佐倉시티브라스	1986년	60명	26세	1,0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市民音樂홀		4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년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정기연주	연간행사
佐原윈드앙상블	1986년	40명	25세	1,000엔	매주수요일	19:00-21:00	第一公民館	1회	2회
살던윈드오케스트라	1986년	25명	25세	1,000엔	매주일요일	13:15-17:00	中央公民館		적당
館山吹奏樂團	1971년	40명	26.5세	1,000엔	매주토요일	17:00-20:00	中學校音樂室	1회	2회
千葉엔터테인먼트	1987년	40명	27세	1,500엔	매주수,토요일		市公民館	1회	6회
듀크톤즈	1988년	8명	24세	250엔	매주토,일요일		컴퓨터센터		2회
習志野윈드오케스트라	1985년	80명		1,0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컴퓨터센터	1회	5회
花輪윈드오케스트라	1991년	60명	20세	2,0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市民프라자홀	1회	4회
富津市民交響吹奏樂團	1990년	45명	16세	2,000엔	매주일요일	09:00-16:00	中學校音樂室	1회	3회
船橋市交響吹奏樂團	1989년	70명	21.5세	2,000엔	매주일요일	17:00-21:00	市靑少年會館	2회	4회
松戶市民吹奏樂團	1970년	60명	26세	1,000엔	매주토요일	17:00-21:00	市民會館	1회	3회
松戶브라스오케스타	1986년	45명		1,000엔	매주토요일	17:00-21:00	靑少年會館	1회	3회
八千代吹奏樂團	1983년	54명		1,0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自治會館	1회	2회
關東地方 神奈川縣									
아우로스윈드오케	1991년	36명	24세	2,000엔	매주일요일	17:00-22:00	컴퓨터센터	1회	3회
靑葉臺吹奏樂團	1985년	60명		8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中學校體育館	1회	7회
足柄吹奏樂愛好會	1983년	30명	25세	3,0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晴文化센터	1회	1회
綾瀨市民윈드앙상블	1988년	35명	20-30세	1,500엔	매주토요일	18:30-21:00	中學校音樂室		2회
Welcome Brass	1993년	10명	20세	3,0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2:00	컴퓨터센터		1회
小田原吹奏樂硯究會	1962년	50명	27세	1,500엔	매주금,토요일	19:00-21:00	中學校音樂室	2회	4회
小田原유스윈드앙상블	1979년	30명	12세	1,500엔	매주일요일	10:00-12:00	中學校音樂室		4회
金澤吹奏樂團	1961년	50명	26세	1,000엔	매주토,금	18:00-21:00	市硯修센터	1회	2회
鎌倉릴라모닉윈드	1983년	25명	25세	3,000엔	매주토,일요일	18:00-22:00	市公民館	1회	5회
川崎윈드	1986년	40명	25세	1,000엔	매주토,일요일	17:30-22:00	市文化센터	1회	4회
川崎吹奏樂團	1971년	50명	30세	2,000엔	매주목,금요일	17:30-22:00	市民靑音樂室	1회	5회
金目중브라스OB會	1993년	10명	21.5세	부정기	필요시		市公民館		
그랄윈드오케스트라	1990년	74명	24세	2,000엔	매주일요일	13:00-17:00	市合同廳舍	2회	5회
港南臺뮤직다르모니	1991년	20명	23-24세	1,000엔	매주토,일요일	적당한 시간	市内 練習室	1회	2회
相模原市民吹奏樂團	1965년	77명	25.9세	2,000엔	제1,3토요일	13:00-17:00	靑少年會議室	1회	5회
座間윈드앙상블	1992년	35명	19세	1,000엔	매주토요일	17:00-21:00	市靑少年會館	1회	4회
湘南시-윈드앙상블	1993년	45명	21세	1,200엔	매주화,일요일	13:00-17:00	市靑少年會館	1회	7회
多摩川吹奏樂團	1988년	51명	25세	1,500엔	매주토,일요일	17:30-21:00	市文化센터		2회
茅ヶ高OB吹奏樂團	1984년	50명	22세	300엔	매주일요일	17:00-21:00	市靑少年會館		4회
BAG윈드앙상블	1988년	50명	23.6세	500엔	매주일요일	10:00-13:00	高校音樂室	1회	1회
北陵윈드앙상블	1981년	100명		부정기	행사전도일		高校敎室	1회	5회
홀즈 브라스 카펠	1988년	63명	23.5세	2,000엔	격주토,일요일	17:00-21:00			
레넨마하 吹奏樂團	1955년	30명	18세	2,000엔	매주일요일	08:30-16:30	中學校音樂室	1회	2회
橫濱그린하모니	1983년	76명	18.2세	2,000엔	매주금요일	18:00-21:00	市靑少年會館	1회	6회
橫濱港北區民吹奏樂團	1980년	77명	21.7세	1,5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4회
橫濱릴라모니吹奏樂團	1991년	52명	19.5세	2,000엔	매주토요일	18:30-21:00	市靑少年會館	1회	5회
橫濱市民吹奏樂團	1854년	52명	23-24세	3,000엔	매주화,토,일	18:0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5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연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정기연주	연간행사
横浜히라누團	1983년	41명	25.2세	2,0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학교개방이용	1회	7회
横浜綠吹奏樂團	1986년	60명	25세	2,000엔	월3회		문화센터	1회	7회
유스 윈드오케스트라	1979년	65명	24세	2,500엔	매주토,일요일	17:00-21:30	컴퓨터센터	1회	5회
横浜樂友協會吹奏樂團	1975년	50명	30세	년5천엔	연주회전결정		市內公共施設	1회	4회
<b>關東地方 東京地區</b>									
AZUMA吹奏樂團	1988년	60명	20세	1,000엔	매주화요일	18:30-20:30	中學校音樂室	1회	3회
足立吹奏樂團	1978년	65명	20세	1,000엔	매주금,일요일	18:0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4회
池上윈드앙상블	1985년	34명	23세	4,500엔	매주일요일	13:00-16:30	市文化센터	1회	2회
板橋區吹奏樂團	1986년	91명	23세	2,000엔	매주월요일	17:30-21:20	區立文化홀	1회	6회
에델마이스 브라스	1978년	50명	26세	3,000엔	매주일요일	13:30-16:30	口立會議室	1회	3회
NBD吹奏樂團	1977년	43명	18세	2,000엔	매주토요일	18:00-22:00	市民會館	1회	2회
音の輪윈드심포니카	1989년	85명	18세	2,200엔	매주일요일	10:00-16:30	N響演習室	1회	1회
吉祥윈드앙상블	1987년	30명	24세	1,500엔	격주일요일		武藏野市民館		1회
小平靑少年吹奏樂團	1985년	80명	20.5세	1,000엔	매주화,토요일	18:3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5회
石神井윈드앙상블		60명	23세	4,0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區立教育센터	2회	4회
乘泉寺吹奏樂團	1965년	90명	24세	2,000엔	매주일요일	16:30-20:30	區地下文化홀	1회	2회
新交響吹奏樂團	1961년	75명	20-22세	3,000엔	매주금요일	18:00-21:00	東京文化會館	2회	3회
立川市吹奏樂團	1968년	75명	28세	1,000엔	매주수,일요일	주관과 야간	市民館	1회	3회
東海윈드오케스트라	1985년	50명	28-30세	1,000엔	매주일요일	10:00-18:00	東海大學敎室	1회	2회
東京正人吹奏樂團	1990년	55명	23세	2,000엔	매주토,일요일	18:00-22:00	區廳練習室	1회	6회
東京파이핀소사이어티	1976년	50명	30세	500엔	매주월요일	18:00-21:00	JR日黑會館		5회
東京뮤즈심포니밴드	1980년	45명	28세	1,000엔	매주일요일	적당한 시간	區教育센터	1회	4회
東京리서치합奏團	1974년	60명		3,000엔	매주일요일	13:00-17:00	오마스타지오	1회	2회
하모니아윈드앙상블	1989년		26세	부정기	매주토요일	18:00-21:00	뮤지스타지오	1회	5회
府中市靑少年吹奏樂團	1965년	82명	21.3세	500엔	매주수,토,일	18:00-20:00	市學習센터	1회	7회
블루스카이윈드앙상블	1976년	45명	26세	2,000엔	매주토,일요일	18:00-21:00	GG會社大홀	1회	3회
文京윈드오케스트라	1981년	40명	24세	2,000엔	매주목,토요일	18:00-21:00	區立教育센터	1회	3회
화이트그라스윈드	1988년	45명	18-21세	1,000엔	격주일요일	13:30-17:30	會社會議室		3회
武藏野市民交響樂團	1975년	120명	25세	2,500엔	매주토,일요일	12:00-17:00	中學校音樂室	2회	9회
ヤマハ池袋吹奏樂團	1967년	60명	29세	4,635엔	매주토요일	18:00-21:00	가든빌딩6F	1회	2회
武藏村山윈드앙상블	1984년	80명	18세	1,000엔	매주토요일	18:00-22:00	市公民館	1회	5회
立敎大學庶民吹奏樂團	1991년	71명	20세	2,000엔	매주화,수,금	18:00-21:00	勤勞福祉會館	1회	3회
<b>東海地方 愛知縣</b>									
安城市民吹奏樂團	1971년	50명		1,500엔	매주수,금요일		靑少年의 집	1회	5회
稻澤市民吹奏樂團	1985년	27명	28세	1,000엔	매주목,일요일	19:00-21:00	市武道館		4회
春日井市民吹奏樂團	1981년	50명	25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19:00-21:00	高校音樂室	1회	4회
蟹江吹奏樂團	1970년	40명	25세	1,000엔	매주목,일요일		中央公民館	1회	5회
蒲郡市吹奏樂團	1961년	94명	23세	500엔	매주2-3회	19:00-21:00	市民會館	2회	10회
中日交響吹奏樂團	1963년	60명	25세	500엔	매주월,금요일	18:00-20:30	中日新聞 홀	1회	5회
東海吹奏樂團	1983년	70명	24세	1,500엔	매주토요일	18:30-21:00	社會教育센터		6회
豊橋윈드앙상블研究會	1971년	35명		1,000엔	매주수요일	19:00-21:00	中學校體育館	1회	4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년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정기연주	연간행사
名古屋吹奏樂團	1933년	50명	21세	2,000엔	매주일요일	14:00-17:00	이동연습	1회	2회
西尾市民吹奏樂團	1972년	50명	20-23세	1,000엔	매주화,토요일		市青年의집	1회	6회
尾西윈드오케스트라	1967년	50명		1,000엔	매주일요일	17:00-21:00	市文化會館	2회	3회
御律吹奏樂團	1975년	50명		1,000엔	매주수,토요일	19:30-21:30	中央公民館	1회	5회
東海地方 三重縣									
伊勢심포닉밴드	1975년	45명	26세	1,500엔	매주토요일	19:00-	小學校體育館	1회	5회
上野윈드앙상블	1982년	50명	26세	1,000엔	매주일요일	17:00-20:00	環境改善센터	1회	6회
桑名吹奏樂團	1974년	67명	26세	1,500엔	매주수요일	19:00-21:00	市公民館	1회	5회
白子윈드심포니카	1971년	70명	26세	1,000엔	매주목,일요일	19:00-22:00	市民會館	1회	4회
松阪심포닉밴드	1977년	35명	25세	1,000엔	매주토요일	18:30-21:00	市中央公民館	1회	5회
ひだR管樂앙상블	1982년	20명	25세	2,000엔	매주일요일	18:00-21:30	市文化會館		5회
東海地方 岐阜縣									
稻羽吹奏樂團	1986년	35명	25세	1,0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1:00	市産業會館	1회	6회
大垣市吹奏樂團	1972년	26명	23세	2,0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1:00	北部學習센터	1회	3회
各務原市民吹奏樂團	1970년	60명	23.5세	2,000엔	매주화,토요일	19:30-	中央公民館	1회	3회
可兒市民吹奏樂團	1989년	25명	23세	1,500엔	매주토요일	18:30-21:00	帷子公民館		3회
岐阜주니어吹奏樂團	1984년	40명	12세	5,000엔	매주일요일	오전중	방송스튜디오	1회	20회
SHAMMY BRASS	1990년	10명	22.8세	500엔	매주토요일	21:00-23:00	個人所有建物		
關市民吹奏樂團	1989년	35명	26.8세	1,000엔	매주월,금요일	19:00-21:00	關中池管理棟	1회	6회
中津川市民吹奏樂團	1978년	50명		2,000엔	매주수,토요일	20:00-21:30	會議室	1회	5회
長良심포닉밴드	1967년	60명	22.5세	1,200엔	매주수요일	18:30-21:00	長良公民館	1회	15회
廣神戶윈드앙상블	1986년	62명	20.5세	500엔	매주토요일	18:30-21:00	中央公民館		4회
東海地方 長野縣									
伊那市民吹奏樂團	1974년	40명	25세	2,500엔	매주화,토요일	19:00-21:30	勤勞靑少年會	1회	6회
윈드오케스트라앙콜	1985년	60명	25세	2,000엔	매주수요일	18:00-21:00	勤勞靑少年會	1회	5회
長野市民吹奏樂團	1972년	81명	30세	3,000엔	매주화요일	19:00-21:30	市松代文化會	1회	4회
松本市民吹奏樂團	1980년	66명	26세	2,500엔	매주화,금요일	19:30-22:00	市音樂文化會	2회	5회
東海地方 靜岡縣									
大井川吹奏樂團	1992년	53명	25.8세	2,000엔	매주금요일	19:00-21:00	町中央公民館		4회
御殿場吹奏樂團	1980년	40명	25세	2,000엔	매주월,금요일	19:00-21:30	中央靑年の집	1회	4회
靜岡필하모닉소아시티	1974년	60명	24세	1,500엔	매주화,목요일	18:30-20:30	樂器店演習室	1회	4회
島田交響吹奏樂團	1968년	60명	24세	1,300엔	매주화,금요일	19:00-21:30	市民會館홀	1회	9회
清水윈드오케스트라	1988년	50명	23.5세	2,000엔	매주수요일		高校音樂室	1회	10회
清水브라스오케스타	1986년	45명	23세	2,000엔	매주월,목요일	19:30-22:00	海洋會館	1회	9회
下田吹奏樂團	1980년	28명	28.5세	3,0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1:30	市民文化會館	1회	4회
浜北市民吹奏樂團	1981년	66명	23세	1,500엔	매주목요일	18:30-21:30	市文化센터	1회	7회
浜松交響吹奏樂團	1978년	85명	26세	2,000엔	매주일요일	오전중	市公民館	1회	4회
藤枝市民吹奏樂團	1980년	58명	28세	2,0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스포츠센터	1회	10회
富士交響吹奏樂團	1972년	60명	31세	2,000엔	매주화,금요일	18:00-21:00	富士文化센터	2회	8회
富士宮吹奏樂團	1985년	45명	25-26세	3,000엔	매주목,일요일	19:00-21:00	團地會議室	1회	5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연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창기연주	연간행사
鹿律市民吹奏樂團	1970년	50명	25세	2,000엔	매주월,수요일	18:00-21:00	市民센터 홀	1회	5회
北陸地方 福井縣									
SONORE WIND	1987년	97명	22.7세	500엔	매주월,화,토	19:00-21:30	市文化센터	1회	5회
敦賀市民吹奏樂團	1992년	90명	23세	1,000엔	주1회	19:00-21:00	移動練習	1회	2회
福井브라스이카데미	1977년	93명	24세	800엔	월6회	18:00-22:00	幼稚園	1회	6회
北陸地方 石川縣									
金澤吹奏樂硏究會	1971년	60명	23세	1,500엔	매주수,일요일	19:00-21:00	警察音樂室	1회	4회
輪島吹奏樂團		50명	22세	3,000엔	매주목,토요일	18:00-21:30	市文化會館	1회	5회
北陸地方 富山縣									
社會人 吹奏樂團	1985년	35명	24세	1,0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1:30	中學校音樂室	1회	5회
富岡市民吹奏樂團	1981년	15명	25세	800엔	매주토요일	18:30-21:20	中央公民館		
富山ミナミ吹奏樂團	1978년	80명	22세	1,000엔	매주화요일		小學校體育館	1회	3회
關西地方 大阪府									
阿倍野高OB吹奏樂團	1989년	50명	23세	1,000엔	매주화요일	18:00-21:00	中央青年센터	1회	2회
泉大津市吹奏樂團	1966년	70명	25세	1,000엔	매주화,토요일	18:00-21:00	勤勞青少年홀	1회	9회
茨木市吹奏樂團	1964년	85명	22세	1,0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1:00	中央公民館	1회	3회
大阪市民吹奏樂團	1984년	70명	24세	2,500엔	매주금요일	19:00-21:00	市野外音樂堂	1회	3회
樂風會吹奏樂團	1986년	45명	20세	1,000엔	매주토요일	18:00	市民會館	1회	3회
北河內樂團		60명	21세	1,000엔	매주수,목,일	18:30-21:00	楠葉公民館		6회
四條畷吹奏樂團	1981년	75명	26세	1,0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市民總合센터	1회	3회
四天王寺吹奏樂團	1923년	40명	25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18:00-21:00	寺內研修道場	1회	5회
吹田市吹奏樂團	1983년	45명	20세	1,500엔	매주일요일	09:00-12:00	文化센터	2회	3회
泉南市青少年吹奏樂團	1984년	60명	18.25세	1,0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市立文化홀	2회	3회
創備學會大阪吹奏樂團	1986년	50명	21세		격주토요일	18:30-20:30	關西文化會館	1회	3회
創備學會關西吹奏樂團	1971년	100명	25세		주 2,3회	19:00-22:00	府立練習場	1회	5회
大正高吹奏樂部OB會	1991년	55명	24세	250엔	필요시		高校音樂室		2회
高槻市音樂團管樂部	1959년	79명	21.52세	5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2:00	市公民館	2회	3회
豊中市青少年吹奏樂團	1968년	55명	23세	500엔	매주월,목,일	18:00-21:00	市立公民館	2회	5회
NANIWA 윈드앙상블	1985년	45명	25세	2,000엔	매주월요일	19:00-21:00	樂器社演習室	1회	5회
枚方메이스브라스	1993년	15명	24세	1,000엔	매주일요일	09:30-12:00	市立公民館		
藤井寺市民音樂團	1969년	50명	25세	6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2:00	市民會館	1회	4회
守口青少年吹奏樂團	1960년	60명	23세	1,500엔	매주수,금요일	18:00-21:00	市靑少年센터	1회	6회
關西地方 京都府									
에스모알 吹奏樂團	1961년	45명	28세	2,000엔	매주목요일	19:00-21:00	高校音樂室	1회	3회
吹奏樂團京都브라스	1986년	42명	24세	1,000엔	매주일요일	18:00-21:00	컴퓨터센터	1회	3회
吹奏樂團라이브릿트	1969년	90명	23세	2,500엔	매주토,일요일	18:00-21:00	셀츄리 홀	1회	5회
吹奏樂硏究會윈드오케	1993년	40명	22세	2,000엔	매주토요일	18:00-21:30	文化센터 홀	2회	6회
團部吹奏樂團	1975년	41명	24세	2,500엔	매주일,수요일		中央公民館	1회	5회
長岡시티앙상블	1989년	65명	23.9세	1,000엔	매주일요일	17:30-21:00	中央公民館	1회	5회
舞鶴市民吹奏樂團	1992년	70명	28세	2,000엔	매주일요일	19:00-21:00	市公團體育館	1회	2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년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정기연주	연간행사
洛西吹奏樂團	1981년	41명	20세	3,000엔	매주수요일	18:00-21:00	文化會館	1회	4회
롯데 앙상블	1975년	41명	26세	3,000엔	매주수요일	18:00-21:00	센츄리센터		5회
關西地方 兵庫縣									
明石吹奏樂團	1971년	57명	25.4세	1,0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0:40	中央公民館	1회	4회
尼崎市吹奏樂團	1954년	120명		1,0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總合文化센터	2회	7회
加古川아카데미	1990년	47명	21세	2,0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1:00	野口公民館		7회
川西市吹奏樂團	1975년	50명	25세	500엔	매주화,목,토	19:00-21:00	幼稚園講堂	1회	5회
神戸심포니밴드	1977년	80명	28세	3,000엔	매주화,토,일	17:30-17:00	登山研修所	1회	6회
吹奏樂團브라스포레타	1968년	60명	26세	1,800엔	매주수,금요일	18:30-21:00	靑少年會館	1회	5회
洲本吹奏樂團	1984년	31명	23.7세	200엔	매주월,금요일	20:00-22:00	柏木樂器2F	1회	6회
高砂市吹奏樂團	1982년	72명	23.6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19:00-21:00	中央公民館	1회	5회
西宮市吹奏樂團	1964년	97명	23세	1,000엔	매주화,수,금	18:00-21:30	市立公民館	1회	7회
姫路市吹奏樂團	1971년	75명	24세	2,000엔	매주수,토요일	18:00-21:30	市民廣場홀	1회	6회
兵庫縣中央吹奏樂團	1982년	35명	30세	2,000엔	매주일요일	13:30-16:30	葦合文化센터	1회	2회
三木市吹奏樂團	1973년	63명	25세	5,000엔	매주목요일	19:00-21:30	市文化會館홀	1회	4회
三木L&U吹奏樂團	1991년	73명	25세	무료	매주수,일요일	17:00-22:00	中央公民館	1회	3회
關西地方 滋賀縣									
大津吹奏樂團	1964년	90명		1,500엔	매주수요일	19:00-21:00	社會體育會館	1회	3회
高島윈드앙상블	1975년	20명		1,000엔	매주토요일	19:00-21:00	高校音樂室	1회	4회
關西地方 奈良縣									
生駒吹奏樂團	1991년	20명	25세	무료	격주금요일		中央公民館		
橿原市吹奏樂團	1973년	70명	27세	1,000엔	격주수,토,일	19:00-	靑少年會館	1회	6회
郡山市티심포니사운드	1983년	40명	24세	1,000엔	매주일요일	17:00-21:00	市文化센터	1회	2회
센트린디앙상블	1990년	70명	23세	1,500엔	격주토,일요일	17:00-21:00	市地區公民館		5회
奈良吹奏樂團	1963년	36명	31세	5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中央公民館		수회
平城심포니앙상블	1987년	90명	23세	1,000엔	필요시		移動練習		
關西地方 和歌山縣									
海南吹奏樂團	1982년	45명	25-26세	1,000엔	매주화,금요일	19:00-21:00	勤勞靑少年홀	1회	3회
中國地方 廣島縣									
祇園윈드앙상블	1989년	70명	23세	1,500엔	매주목요일	18:0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7회
廣島시티하모니		30명		1,500엔	매주일요일		中學校音樂室		4회
廣島吹奏樂團	1965년	60명	25세	2,000엔	매주월,일요일	19:00-21:00	放送スタジオ	2회	6회
中國地方 岡山縣									
岡山吹奏樂團	1997년	45명	26세	1,500엔	매주토요일	19:00-21:00	이동연습	1회	3회
倉敷아카데미윈드	1982년	26명	23세	2,000엔	매주금요일	19:00-21:30	市民會館	1회	3회
倉敷市民그린하모니	1969년	150명		2,000엔	매주화,일요일	18:00-	町公民館	1회	4회
西大寺吹奏樂團	1982년	45명	23세	1,000엔	매주화,토요일	19:00-21:00	中學校練習室		
醉聖會브라스오케	1986년	20명	22세	2,000엔	매주토,일요일	18:00-21:00	中央公民館		4회
總社吹奏樂團	1976년	53명	24세	필요시	매주수,토요일	19:00-21:00	勤勞靑少年홀		6회
津山市티브라스	1989년	58명	25세	1,000엔	매주화요일	19:00-21:30	스타디오시티	1회	3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년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창기연주	연간행사
中國地方 山口縣									
岩國윈드앙상블	1980년	68명	24.6세	1,500엔	매주목,토요일	18:30-21:00	中學校體育館	1회	5회
岩國BIG윈드	1992년	55명	20세	2,000엔	매주일요일	18:30-21:00	市勞働會館		6회
下松市吹奏樂團	1980년	50명	25세	1,500엔	매월8회	18:00-21:00	市民會館	1회	7회
徳山大學吹奏樂團	1981년	30명	20세	1,000엔	매주토요일	16:40-19:00	大學內講堂	1회	6회
豊北吹奏樂團	1974년	43명	24-25세	1,000엔	매주목,토,일	19:00-22:00	町民센터	1회	7회
山口브라스소사이티	1985년	78명	23세	1,000엔	매주일요일	17:00-20:00	高校音樂室	1회	3회
中國地方 鳥取縣									
鳥取심포닉윈드	1983년	67명	23세	1,000엔	매주수,목,토	19:00-21:00	勤勞青少年會	1회	3회
中國地方 島根縣									
出雲吹奏樂團	1968년	50명	25세	1,250엔	매월화,토요일	20:00-22:00	流通센터	1회	5회
大田윈드오케스트라	1992년	75명	23세	1,000엔	매원목요일		高校音樂室	1회	5회
카오스 音樂集團	1988년	40명	30세	1,000엔	필요시			1회	5회
四國地方 香川縣									
第一高OB吹奏樂團	1990년	30명	25세	없음	격주토요일	18:00-21:30	高校音樂室	1회	2회
高松市民吹奏樂團	1974년	70명	24세	1,500엔	매주토요일	18:00-21:00	市民文化센터	1회	3회
四國地方 高知縣									
鏡野吹奏樂團	1977년	68명	23세	1,000엔	매주수,일요일	18:00-21:00	中學校音樂室	1회	10회
高知윈드앙상블	1983년	45명	30세	1,000엔	매주금요일	19:00-22:00	峯山文化會館	1회	5회
四國地方 愛媛縣									
宇和島市民吹奏樂團	1986년	15명	26.5세	500엔	매주월,수요일	19:00-21:00	선프라차홀		1회
愛媛윈드앙상블	1983년	28명	24세	1,500엔	매주금요일	19:00-21:30	河上樂器店	1회	4회
松山市民吹奏樂團	1974년	76명	24세	2,000엔	매주토,일요일	18:00-21:30	愛媛文化會館	1회	4회
九州地方 復甞縣									
아트락티부사운드포레	1990년	55명	19세	3,000엔	매주화,토요일	18:00-21:30	若松市民會館	1회	4회
宇美엔조이브라스감파	1981년	20명	24세	750엔	매주화,목,토	19:30-21:30	中央公民館		4회
春日市民吹奏樂團	1977년	73명	23세	1,700엔	매주토,일요일		市文化會館	1회	10회
北九州校響吹奏樂團	1984년	68명	22세	1,000엔	매주토,일요일	18:00-21:00	北九州파레스	2회	6회
久留米兒童吹奏樂團	1971년	60명		2,000엔	매주일요일	13:00-16:00	合川初等學校	1회	3회
大牟田奏友會	1976년	75명	25세	2,000엔	매주화요일	19:00-21:30	甘木中學校	1회	6회
筑紫野市吹奏樂團	1973년	50명	24세	1,400엔	매주화,토요일	18:00-22:00	中央公民館	1회	5회
노이즈 吹奏樂團	1989년	15명	23세	1,000엔	매주일요일	19:00-22:00	住民센터 홀		3회
復阿윈드앙상블	1993년	30명	22세	3,500엔	매주화요일	19:00-21:30	파피오 빌딩		2회
復甞市民吹奏樂團	1974년	80명	25세	1,500엔	매주수,토요일	19:00-22:00	復甞町公民館	1회	8회
九州地方 佐賀縣									
佐賀市民吹奏樂團	1981년	70명	25세	2,000엔	매주월,목요일	19:00-21:00	市文化會館	1회	6회
九州地方 長岐縣									
諫早吹奏樂團	1982년	55명	24.1세	800엔	매주 2회		文化會館中홀	2회	7회

단 체 명	창단일	단원수	평균년령	월회비	연습일	연습시간	연습장소	정기연주	연간행사
九州地方 熊本縣									
天草吹奏樂團	1989년	50명	24세	1,000엔	매주수요일	19:30-	勤勞者福祉館	1회	3회
菊陽吹奏樂團	1979년	55명		800엔	매주월,수,토	19:30-22:00	中學校音樂室	1회	9회
熊工OB윈드앙상블	1975년	35명	24-51세	2,000엔	매주일요일	16:00-18:00	劇場練習室		3회
八代윈드오케스트라	1993년	30명		1,000엔	격주토요일		松高公民館	1회	2회
九州地方 鹿兒島縣									
宮之城吹奏樂團	1985년	63명	23세	1,000엔	매주토요일	19:00-22:00	文化센터 홀	1회	5회
九州地方 大分縣									
上浦町吹奏樂團	1983년	52명	25세	2,000엔	매주금요일	19:00-22:00	町中央公民館	1회	8회
주리카와윈드	1990년	56명	25세	500엔	매주월,화,금	19:00-22:00	高校音樂室	1회	5회
심포닉 웨예브	1990년	34명	24세	1,500엔	매주월요일	19:00-21:30	中學校體育館	1회	4회
別府湯양상블	1988년	10명	26.4세	1,000엔		19:30-22:00			6회
루메아 吹奏樂團	1987년	40명	25세	1,000엔	매주화요일	19:00-	縣立藝術會館	1회	6회

자료 출처 : 市民吹奏樂團, ガイド BOOK, 株式會社 音樂之友社, 1994.